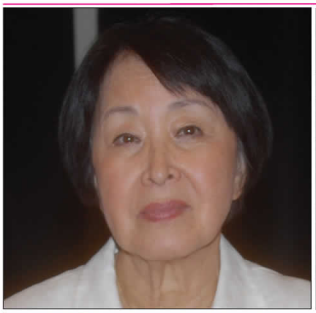
1□□ 1~2□□Aug_Rev 2011-01-12 □□ 9:43 Page 1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1호 2011년 1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송순영 총동창회장 2011년 새해 인사

동문가정마다 다복한 한해를 기원

지난 해의 모든 사업 · 행사 순조롭게 진행
남은 6개월 동창회 위해 최선 다할 터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은 여러 분 가정에 행운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의 미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히 혼동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창회는 여러 분의 참여와 끊임없는 지원을 받으며 아무 지장없이 계획한 모든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6월 평의원 회의의 전야제는 이제진 교수님의 명강의로 시작했는데 초청돼 오신 외부 손님들로부터 이구동성의 지대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평의원 회의도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새로이 통과된 중요한 안건으로 ▶회장선거 절차 Nomination Committee를 구성했고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영구한 Official web을 'snuaa.org'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10월에는 '동문' 이라는 자격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행사로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였기에 바람직한 점도 있었지만 65명의 동문이 참석한 추억에 남는 행사였습니다. 동문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는 'Brain Network' 첫 사업으로 각 분야에서 업적이 높은 10여명의 동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정치 ·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본 한반도의 장래' 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고병철 박사님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는 참으로 보람이 크고 모든 면으로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 미주 동창회 발전 현상으로 기쁘게 생각되는 것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동창회 재정적 자립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동문들이 진정으로 동창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지원해주셨기에 가능했으므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교 발전을 위해 '서울대 미주 발전기금' 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문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주시리라 믿으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도 우리 임원진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동창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 올해도 동문님들 가정마다 다복(多福)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PRSR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차차기 미주 총동창회장 후보 3명 추천

추천위원회 투표통해 최종 선출

차차기 미주 총동창회장(제12대) 선출을 위한 후보로 3명의 동문이 추천됐다.

송순영 총동창회장은 "Nominating Comittee Bylaw에 의해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미주 각 지역 동창회로부터 차차기 총동창회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이 3명의 동문이 추천돼 왔다" 고 밝혔다.

3명의 동문은 ▶한수웅(의대 55입 ·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동문 ▶조시호(문리대 59입 · 텍사스 지역 동창회) ▶오인환(문리대 63 ·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동문이다.

이상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주 총동창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Nomination Committee)' 에서 후보에 대한 심의와 협의를 거친 후 투표로 선정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총동창회의 송순영 현 회장과 이전구 전 회장, 김은종 차기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을 비롯해 뉴잉글랜드 · 하틀랜드 · 휴스턴 · 필라델피아 지역 동창회에서 각각 1명씩 선정된 총 7명으로 구성하기로 지난 6월 평의원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후보들은 앞으로 동창회보를 통한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시호(문리대 59입) 동문, 한수웅(의대 55입) 동문, 오인환(문리대 63) 동문

기 획 총장 · 총동창회장 · 지역 동창회장 신년사.....2~5면

1□□ 1-2□Aug_Rev 2011-01-12 □□ 9:43 Page 2

기 획 총장·총동창회장 신년사

오연천 총장 신년사

"이제는 세계인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 응답할 때"

서울대를 아껴주시는 제미 동문 여러분!

신묘(辛卯)년이 왔네 밝았습니다. 다당했던 경인(庚寅)년 한 해 동안 온갖던 우리의 발과 노력을 역사의 장에 결혼히 헌정해드리 우리는 새로이 펼쳐지는 희망찬 시간 앞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토끼를 평화의 상징으로 생각했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지난 해 우리가 경험인 대내외적 도전과 난관을 생각해보면 평화롭고 화합이 넘치는 가운데 가치인정을 다시금 깨달게 됩니다. G20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안전한 미래와 잠 번영을 향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면서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 단단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21세기 두 번째 십년대를 여는 시점에 서있는 앞에서 우리는 국민의 자신이 교육과 학문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바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 그리고 국민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명문대학의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민모의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2009년 기교 이래 6년 동안 쌓았던 서울대의 저력과 역량과 역사적 소명은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유산이자 자산입니다.

그것은 인류와 국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학문과 교육을 존중하는 나라였습니다. 학문에 역사가 고요, 학문에서 현실의 원동력을 새롭으며, 학문에서 미래를 여는 지식과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우리 국민이 교육에 열정을 쏟아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서울대가 '학문적 기지창조'의 선도자이자, 인재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임중한 역사적 책무이자 미래의 과료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 시련과 험난한 도정을 거쳐 이제 밝고 활기찬 전진의 궤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세계의 개도국에 희망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 잠재력이 대학의 지적 수준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생각한다면, 평화와 풍요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가난과 후진적 병폐에 시달리는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서울대는 무언가 책임있는 행동과 약속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사회를 넘어 이제 세계 국가들의 형편을 해아 릴 만큼 성숙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이 희망입니다. 서울대가 그 희망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가 우리 국민에, 나아가 세계인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국민적 기대는 미래를 개척하는 서울대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고, 그에 깊었는 응답은 새로운 기대를 창출하는 혼연일체의 프러스입니다.

저는 이 응창은 코러스의 전제가 바로 '자기혁신'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돌파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시 우리는 60년 동안 지속된 교육과 연구의 현황적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 대학 스스로 성공의 신화에 자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일궈낸 '대가의 성공' 이 만족한다면, 우리는 곧 미래의 '성공의 하기' 에 직면할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원리가 지난 세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한다면, 새로운 세기의 교육과 연구를 주도 할 선배터전의 창출이라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학은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원리를 접목하는 '개방과 융합' 을 추구해왔다면, 자기혁신이야말로 '개방과 융합' 의 유동적 과정을 상상력과 정의성의 영역에 결합시키는 소통의 에너지입니다.

자기혁신은 서울대인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시 우리는 지식인에게 주어진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지 않았는지, '어둠의 좌수꾼' 이라는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고슈들은 자신의 전적권위로 구축한 성위에 안주하면서 사회개혁을 원하는 시정의 목소리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학생들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핵원의 본질과 시대적 소명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 집착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서울대의 교육은 인격을 갖춘 교양시민(Bildungsbürgertum)이자 각 방면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지만, 한국사회와 지구촌에 대한 배려와 헌신이 없다면 '학문적 기지창조' 의 인문주의적 기초는 허물어지고 말 입니다. '배려와 헌신' 이 바로 자기혁신의 핵심요건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시간대에 '배려와 헌신' 을 갖추려는 이들을 입시와 경쟁 위주의 한국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 설계를 내놓아야 하는 서울대의 시대적, 국가 적 과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학입성취도와 잠학률은 선진국이 부러워 할 정도로 높아다. 과학과 사회, 인문과 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지, 시민윤리와 도덕을 고양시키기 못했는지 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진국은 자랑하는 교양시민이 왜 우리 사회에는 단단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양시민이 갖춘 자질을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 선진국들이 발전시킨 고등교육의 소산입니다. 그들은 오랜 전부터 전문지식과 인문정신의 균형적 함양을 추구해 왔음에 비해, 우리는 성장위주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다보니 균형에 힘인 배분일 것입니다.

교육기 대학은 플라톤의 아카데미(Academy)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라이세움(Lycum)도 더 이상 아닙니다만, '서유 지식' 과 '유용한 지식' 간의 균형이 어느 시대보다 절실한 대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학문과 응용학문간 학합한 교류와 소통은 교육기 교육과 연구라 신 패러다임에 여전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대학은 사회의 본진을 정화하는 숯이고, 실질과 본질, 실용과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배려와 헌신' 을 내면화한 전문인이자 교양시민을 길러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자율과 책임' 을 핵심 정신으로 삼는 '국립서울대학교 발전심학' 은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등교육은 학생선발과 교수채용에서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숙인이 필요했습니다. 국가주도형 패러다임은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만큼 성장시켰던 동력이었습니다. 서계의 고등교육에 대는 이제 국가의 관리에서 자율으로, 감독에서 지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교육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대학구성원의 자율적 모색과 경쟁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적 진도를 개척해 갔습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발전심정' 은 우리에게 독립적 책임과 개척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서울대는 개교 60년 연맹 바야흐로 '자율과 책임' 이라는 두 개의 바퀴로 경로 순탄치 않은 여정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 순간에 서울대 구성원 모두는 주요동 나가기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묘년의 여명과 함께, 예상치 못한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는 그 새로운 길을 갖춘 것이 매나아 합니다. 자기 혁신의 정신을 갖춘한 이유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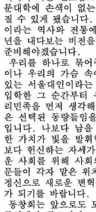
전해하는 서울대 동문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길로 전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4 페이지에 계속>

임광수 총동창회장 신년사

"변화와 혁신의 새해를 꿈꾸며"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밝아온 신묘년 새해에는 모교 33만 동문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해지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틀리고 高高' 하는 말처럼 한 걸음씩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모교와 동창회가 알게 성을 더해 발전의 노력한 해이기도 합니다. 모교는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하나가 되어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을 향해 힘차게 전진한 한 해였습니다.

특히 모교를 법인화 하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법인' 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대학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이토록 모교가 대학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하게 된 밑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명문대학을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는 모교에서 이루는 좋은 소식들이 자주 들려와 모교가 국민에게 사랑 받고 세계 중심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창회에서도 지난 한 해는 매우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던 '장학재단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 이 상호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할 것 없이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동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가지 이러을 속에서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국의 시인 두보는 '태산을 바라보며' 란 시에서 "언제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안할재정상) 뭇산들이 한눈에 한 번에 (이보리라("뭇뫼산小)" 고 읊었습니다.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곧게 전진 저것 나가야 할 방향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번영과 세계의 인재가 되는 이 시대에 태산과 같이 높은 비전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인도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른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한국 최초의 학문 분야 노벨상 수상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큰 서울대학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함께 노력한다면 재정적은 우리 모교는 거뜬히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애하는 동문 여러분! 동창회가 동창회 관린 장학재단 건립과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 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모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픈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에 건립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돼 지상 19층, 지하 6층규모의 현대식 동창회관이 준공됩니다.그리면 동창회 제산도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며 장학재단을 통한 수익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어 모교와 동문에 대한 지원도 괄목할만한 수준에 도달하게 될 터입니다.

이번 장학재단 건립이 그동안 모금만 갖다는 동문 사회가 동지고 단합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성한의 정성을 보내준 수많은 동문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년에 전부터 총동창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운동' 도 지난해 10월 모교의 최종 최결거구인 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885년을 '개학 연도' 로 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모교 총장께서 10월 14일 개교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함으로써 모교는 세계 명문대학에 손색이 없는 전통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개학 1백1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에 맞게 앞으로의 1백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핵나 지금이나 무슨 세계 경원히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선택된 동창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고귀한 가치가 빛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헌신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요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의 리더로서 우리 동문들이 자격 맡은 희지에서 나눔과 창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혁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창회는 앞으로도 모교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창조적이고 위대한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토끼의 해로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토끼를 상징하는 사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성장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욱더 건강하신 가운데 토끼처럼 지혜로움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청(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김일훈(工)·김창수(NY)·김재환(WA)·남태종(NY)·백순미(工)·오강남(工)·옥길웅(工)·윤상태(WA)·이석구(NY)·이창범(AZ)·임승제(工)·장석정(工)·정동재(PA)·한장섭(NY)

편집위원:곽진(工)·김종원(工)·조재현(工)·구경회(工)·이상주(工)·정호근(工)·홍혜례(工)

이번 호의 차례

3~5.지역 동창회장 신년사 · 계획
6~9.미주지역 동문동정
10.미주 찾아오는 정운찬 동문/1885년 이저와 모는
11.미주재단 · 모교소식
12.Pax Americana는 지속될 것인가
13.자랑스런 서울대인 박병선 박사/이제는 노벨상을 기대하며
14.지난 가을의 울트라 마라톤/언어상에 나타나는 관념의 차이
15.세계명화 감상<11>폴 세잔
16~18.미주 각 지부 동창회 소식
19.북한 라선병원 방문기/시 김삿

20.데뷔 25주년 조수미 동문
21.고국동문 동정
22~23.동창회비명록
24~29.동문 업소록
30.동창회 조직,각 지부 회장단
31.광고
32.광고(정운찬 전 총장)

1쪽 3~14호Aug_Rev 2011-01-12 10:12 Page 1

기 획 새해, 동문들께 드리는 글(신년사·계획)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김정주(문리대 60)
미주동창회 사무총장

친애 하는 미주 동문 여러 분, 미주 동창회 사무총장 김정주가 여러 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동문들과 고 가족 모두 다욱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이해 한 해 중 제일 바쁘게 돌아간다는 이때 조용한 동창회 사무실에서 그간의 동창회보들을 읽어도 보며, 각 지역 동창회에서 보내오는 e-Mail과 서신을 대하며, 또 전화로 소식을 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들이 저를 편안하고 보람되게 만들어 줍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는 옛 말이 있듯이 모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60년도 초반만 해도 9개의 단과 대학과 대학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16개의 단과 대학과 일반 대학원(석사과정 5개였 7학과, 박사과정 5개였 7학과), 9개의 전문 대학원,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 기관들로 구성된 거대한 종합 대학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지난 해인 2010년은 특히 모교의 개학 원년을 1895년으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여러 관·공·전문학교를 통합해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 대학을 설립한 1946년을 개교연도로 채정했으며, 모교의 보다 더 자율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 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한 미주 지역 동문들께서 물질적으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벌써 하자가 없도록 '서울 대학교 미주 재단' 도 설립됐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도 처음 10명권에 진입한데 이어, 2010년에는 50위 를 차지했다며 2015년까지 세계 30대 대학에 진입, 세계의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같이 하겠다는 야심찬 모교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모교의 노력과 동문들이 단합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교는 320만평의 박람한 동문들을 배출했으며, 미주지역만도 6천500명의 동문이 동창회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 민국의 놀라운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프은 Vision을 가지고 해외에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또한 미주 동문들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 총 회장님의 Leadership 아래, 미주 동창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 활성화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미국내 학계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모교 미주 사무소가 있는 Los Angeles 에서 남북한간의 긴박한 현상황에 대해 논의된 'Brain Network Workshop' , 그리고 미주에 거주하는 모든 동문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신 동문 참여 지중해 Cruise' 도 또한 미주 각 지역 동창회원으로서 뜻있는 동문들께서는 누구나 미주 총 동창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된 '서울대 미주 동창회장 추천 By-Law' 등 많은 새로운 Program을 가지고 동문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제31회 서울대 동문 홈커밍데이 겸 가족 친목대회 행사에 6천여 명 동문과 가족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미주 전역에 흩어져 사는 동문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함께 자리를 같이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동문들께서는 동창회에서 발간되는 '서울대 미주 동창 회보' 를 통해 매달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주 동창회에서는 매달 6천650부의 회보를 미주 지역 및 Canada, 또한 모교(10부)와 서울 총동창회(50부)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보 발송후 며칠 지나지 도 않아 "회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하시며 제촉하시는 분문, 이번 호 동창회보에는 좋은 기사가 너무 많아 이웃과 같이 보고 싶어 몇 부만 더 보내주기를 부탁하시는 분들, "동창회보를 받아 보는 것이 일과중 제일 즐거운 시간" 이라 하시며 동창회비를 보내 오는 동문, 동문들의 모교와 동창회에 가진 애착심에 한껏 기쁘기도 하며, 놀라운 느낌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들이 동창회 일에 열중하는 임원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곤 합니다.

정치·경제·문화·사회·예술 등 각 분야에서 계속 기사를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 동창회에서도 동문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동창회의 각종 행사- 여름 야유회·음악회·Golf 대회·Seminar·장학생 선발 등- 이 행사들이 지역 동창회 행사만이라 생각지 마시고 전 동문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소식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보를 통해 동문들의 소식도 듣고 또 미주 동창회 Website (www.snuaa .org) 를 통해 미주 동창회의 활동 상황도 보시고, 동문간에 살의 정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10대 송순영 회장님을 모시고 동창회 일을 맡은지도 이미 1년 반, 그 사이 선후배님들보부터 많은 것을 배우며, 동문의 일원으로 세상스럽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저는 미주 지역 전 동문이 일관된 모습으로 미주 동창회의 필요성을 느끼며, 미주 동창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저려고 합니다.

서울대 동문들과 그 가족 위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미주 각 지역 동창회에도 소원이 성취되며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카고 지역 신임 동창회장

우세위안 교육과 장학사업 치중

김시직(상대 59)

동문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는 훌륭한 동문들이 많은데 제가 2011년도 동창회를 이끌라는 부름을 받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세월의 빠름과 인생의 짧음을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우리 선조들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 1982년도 시카고 지역에서 동창회가 발족한 이래 그동안 역대 회장단과 많은 동문들의 수고로 동창회가 크게 발전해왔기에 무한한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까지 든든하게 다져놓은 기반 위에 서 있는 동창회를 앞으로도 더 잘 이끌어 나가며, 더 많은 번영을 이룰야 하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 전공분야에만 만 전념하며 살아왔기에 여러 면에서 사교방상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여러 동문들의 배려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각자 많은 책임에 따라 열심이 일을 하려 합니다.

그동한 본 동창회 여할에 대하여 제 자신 나름대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동문들간, 즉 Golden Club 회원부터 관악연대의 젊은 후배들까지, 상호우호관계가 중요하며 모교 시카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에 동문 서로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동창회 기존의 많은 사업 가운데 특히 지배로운 자녀교육을 위한 사업과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사업에 크게 치중해보고자 합니다.

전도 유망한 청소년들에게 Global 시대에 맞는 능력있는 Leader로서 주류사회 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기에 5학중 슬기로운 자녀교육 Seminar 등 도움되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미나에는 지명한 학자 외에도 주류사회에 진출한 지명인사의 경험 강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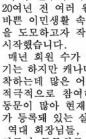
또한 우리 동창회에서는 지금까지 150 여명의 시카고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학기금 중액이 필요하므로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는 그 장학기금 육성을 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9월중 이소정·김기봉 동문이 주관하는 대규모 음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봄과 가을에 경치 시행할 2번의 진선 Golf대회와, 6월에 있을 야외 Picnic, 세종문화회, Golden Club 에서 또한 미주 총동창회에서 계획한 모든 행사를 적극 지원하려 합니다.

지금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그동안 모두가 서로 협조해 온영되고, 발전해 왔듯이 앞으로도 동창 여러 분의 많은 지도·편달·관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창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 신임 동창회장

새 운영체제·동문발굴로 더 번창할것



이인철(사대 59)

우리 밴쿠버 지역 동문회는 20여년 전 여러 원로회원들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도 친목을 도모하고자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년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캐나다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동문이 많아 현재 200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실정입니다.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진들이 동문회를 헌신적으로 운영해오면서 행사를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르기까지 주요 행사는 매년 4-5회씩 소식지를 발행해 회원 가정에 소식을 전하고, 하계 야유회를 열어 동문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원로선배 초청의 밤을 가지고 선후배간 거리를 좁히는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 자녀 중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특수 분야에 뛰어난 재능으로 장래 캐나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발해서 매년 1-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관악상 제도를 만들어 우리 동문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에 낸다드게 공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물을 동문회에서 1명, 또 비동문계에서 1명을 선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통해 부부동반으로 한 자리에 모여 이듬 해 동문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을 선출하고 다양한 여흥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마감하는 좋은 자리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2010년은 이 외에, 동문간 친목과 친교 증진을 위해서 동문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 해서 관악 골프회를 만들어 매주 토요일 3-4팀이 모여 같이 운동을 해왔으며 또 많은 동문 골퍼들이 참가할 수 있는 Open 골프대회를 갖고, 또 새로 Seattle 지역 동문들과 친선 골프대회를 가져 매년 이 모임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원 가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관악 등산회를 만들어 매월 한 번은 쉬운 코스를 택해서 많은 회원 가족이 참석하도록 하고 한 번은 비교적 어려운 코스를 택해 누구나 자기 체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많은 행사를 하는데 봉사 하는 임원진들의 희생이 나무 커서, 내년에는 몇명의 임원들이 일을 많이 해오던 종전의 운영방법을 바꾸어 15명 정도의 운영위원 팀을 만들어 일을 분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도입해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회장으로 필자가, 부회장으로는 조석기 동문과 서정희 동문이 봉사하기로 하고 운영위원들을 선정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중진시장 계속은 물론, 아직 미등록의 많은 동문들을 참여토록 하기 위해 언론·Web site를 이용해서 동문회 행사를 널리 알리고 각 동문들이 미등록된 동문을 찾아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장학 사업을 더욱 확장해 서 많은 동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아 장학기금 모금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모금 방법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로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는 야유회·골프대회·등산 행사를 통해 하기로 한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성취하려면 모든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동문들이 다 같이 동문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面 3~14面Aug_Rev 2011-01-12 □□ 10:12 Page 2

기 획 새해, 동문들께 드리는 글(신년사·계획)

북가주 지역 신임 동창회장

참여하고 싶은 동창회에 최선다할 터

이장우(문리대 72)

이번에 새로 북가주 동창회 회장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번 송년파티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미처 참석하지 못한 동문들에게 신년하례를 겸해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3년간 우리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신 전임회장 홍성제(지대 69) 동문의 뒤를 이어 동문간 단합을 돈독 더 많은 동문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연중행사와 활동을 통해 동문들에게 사랑받고 또 참여하고 싶어하는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사업중 하나는 각 단과대가 자체 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임기내 목표가 '서로 알고 지내자'입니다. 같은 단과대 출신일지라도 동문들이 안타깝게도 서로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개인이 모두 수수하고 자랑스러운 동문들이지만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지도,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동문들께 동창회 참여를 권고해주십시오, '알고 지내는 혜택' 은 결국 동문들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홀륭한 인재들이니만큼 훌륭한 친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각 단과대 모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올대와 간호대 등의 단과대학은 훌륭한 자체 동창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Silicon Valley 지역 특성상 공대출신 동문들부터라도 좀더 격극적으로 알고 지낼다면 서로에게 큰 위기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창회 언에서 교류하고 Networking 하는 것은 "서울대라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려 다닌다" 는 눈총을 받을 일도 없어집니다. 동창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요.

전임 회장님들께서도 노력하신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력이 꼭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 선배들께서는 징검다리가 돼 중간 중간에서 지원자 역할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은 젊은 후배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셨으도. 많은 능력이 있는 젊은 동문들이 이곳에 서울대 동창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내 유익한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워싱턴 지역 동창회장

후배들 주류사회 네트웍에 전력할것

공순옥(간호대 66)

지난 해 하반기부터 워싱턴 지역 동창회의 새로운 회장임을 맡게 됐습니다.

동창회의 Mission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야 할 목적도 알지 못하는 혼돈 상태에서 자문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회장의 임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보니 동창회의 주 목적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치 저의 주체성의 하나인 제 이름의 혼돈하고도 같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저도 미국 주류사회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Maiden Name '공순옥' 은 쓸 기회가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 'Sue Song' 으로 불렸고 한인 사회에서도 '하위드', 한인회에서는 '송수' 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년다나 이름을 다시 Maiden Name으로 바꿀 생각을 못한 것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혼돈이 되어 버무는 칠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대 간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정신 신경과 외래 Clinic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신과 Group Home과 Mental Health Management Consulting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일로는 Johns Hopkins의 부속 병원인 Howard County 병원에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주정부 내 Mental Health Policy 자문으로 있고 한인사회에서는 아직도 하위드 한인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활동 뿐만 아니라 서울대·충남대·삼성병원 소속인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미국연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없는 날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동창회의 임무를 제대로 해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하다가 자문님들과 임원님들을 만나 뵙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문다. 차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동문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문들이 주변의 동문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Communication/PR Committee: 북가주 동창회 자체 웹사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omain(www.smuaa-nc.org)과 Permanent Phone No., e-Mail Address를 Set-Up했습니다. 단과대간 연락과 동창회내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홍보도 담당하시면 그보다 더 많은 동문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문들이 주변의 동문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Communication/PR Committee: 북가주 동창회 자체 웹사이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Domain(www.smuaa-nc.org)과 Permanent Phone No., e-Mail Address를 Set-Up했습니다. 단과대간 연락과 동창회내 커뮤니케이션 및 대외 홍보도 담당하시면 그보다 더 많은 동문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문들이 주변의 동문발굴에 힘써 주십시오.

▶Membership Committee: 현재 북가주 동창회에 가입돼 있는 동문들의 수가 450여 명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연중 내내 추진코자 동창회내에 새 상설 Committee를 구성했습니다. 뜻있는 동문들의 후원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Membership Committee: 현재 북가주 동창회에 가입돼 있는 동문들의 수가 450여 명입니다.

뉴욕지역 동창회장

동창회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강(사대 60)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동문님들께서 지난 해에 베풀어 주신 지도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급년에도 동문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도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은 모교와 모교 총동창회에 뜻깊은 일이 많이 이루어진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숙망해왔던 서울대 법인화가 국회에서 의결됐고 개학 원년도 1895년으로 개경 재택됐으며, 장학기금 빌딩도 완성됐습니다.

모교는 법인화로 인해 이제는 자유로운 가운데 학문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규제를 벗어나 창조적이며 자율적인 계획하에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경쟁력을 고려시키게 돼, 국가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높은 이상과 비전이 있는 대학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함께 해 개정된 개학원년은 모교의 유서깊은 역사를 자랑하게 됐으며, 앞으로 세계대학으로 향하는 서울대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학기금 빌딩은 우수한 인재를 계속 발굴하고 양성시키는 일과 중요한 교수진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일에도 크나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실들이 성취되기까지는 모교 총장님과 총동창회장님의 지도, 그리고 우리 국내외 모든 동문들의 관심과 협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송순영 회장님이 발의, 추진하고 있는(서울대 동문) 'Brain Network' 사업은 바로 이 같은 현실에 당면하고 있는 모교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발전기금 운동도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거듭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핏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교와 모교 동창회가 더욱 발전하면 동문들에게는 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교와 모교 동창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동문이 작으나마 각 지역 동창회를 위해 관심갖고 참여하는데 힘을 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소 불편하고 동창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동창회의 어려운 사업을 위해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든 동문님들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페이지 '오연천 총장 신년사' 에서 계속>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독자적으로 항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신패러다임이 출범하는 이 새로운 시간 앞에서 '국립서울대학교 법인설립' 을 둘러싼 정쟁들과 우려들을 원대한 미래의 가치로 승화시키는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도 서울대는 국립대의 장점을 여전히 살려나갈 것이고, 기초학문과 인본주의적 교육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도 지역균등과 기회균등의 문호를 넓혀 한국사회의 불평등 완화에 최극 나설 것이며, 장학금을 확기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구상 중인 제 2 캠퍼스에 지방국립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수수인재를 유치하는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지방국립대와 공동 개발해 한국이 명실공히 아시아 고등교육의 메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립서울대학교 법인설립' 은 서울대에 부여한 국가와 국민의 희망을 현실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에 내재된 우려들을 발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고등교육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개척하고 결정해야 하는 엄정한 시간들이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커졌음을, 국민적 기대가 배증하였음을, 그리고, 역사적 소명에 응답해야할 서울대 구성원의 시대적 책무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자, 이제 감시다. 겨레의 앞날을 개척하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새로운 각오로 길을 떠납시다.

64년의 역사와 자부심을 '자율과 책임' 의 원천으로 삼아 우리 갈다 감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 획 새해, 동문들께 드리는 글(신년사·계획)·모교 소식

뉴잉글랜드 동창회장

새 아이디어 창출, 격조높은 동창회 될 것

윤희경(문리대 62)

새해를 맞아, 뉴잉글랜드 지역의 여러 동문들께서 지구 동창회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원들과 4개 위원회의 위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열의를 다한 봉사로 인하여 동창회의 여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 완료되었다는 점 매우 고맙고 대견스러웠습니다.

동창회 업무를 시작하면서 먼저 느낀 점은, 동창회는 사실상 가 동문들이 모이 이웃들은 충화로써 동문들이 그 실질적 주인이라는, 혼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이는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동문들과 긴밀한 대화와 창구를 열어 다수 의사가 반영되는 동창회가 되도록 요구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창회의 근본 목적이 성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동창회의 실체를 온전하게 다시 동문에게, 혹은 지역사회에 바르게 전달하는 부수적인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뉴잉글랜드 지구 동창회는 소속 지역사회 기여라는 동창회의 기본 목표를 위해, 비록 흡족치 못한 감이 크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에 동창회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창회는 지역사회가 있기에 가능하다는 면에서, 우리 끼리만이 아닌, 이들 사업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뉴잉글랜드 지역 7개 대학 동창회간의 친선과 한인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NE 대학 골프모임을 창설해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가졌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그 명성 뿐만 아니라 장학금 액수와 지급학생 수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학사업을 다년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주축이 된 격조높은 음악회를 한인 뿐만 아닌 전 지역사회에 선사해 왔습니다. 오는 3월 뉴잉글랜드의 긴 겨울을 멀리 보낼 '봄 맞이 가곡의 밤'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서울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한 심정을 창작하면 동창회의 임무가 새삼스러워지는 동시에 동창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Pride가 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사업 동등으로 인해 동창회는 그 특성상 동문들로부터 받은 것이 동문들께게 환원하는 것보다 많게 됩니다. 이럴에도 불구하고, 선뜻 쉽지 않은 후원을 한 해도 빠짐 없이 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들 후원들이 동창회 기본운영에 밑받침이 될 뿐더러, 임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봉사의 의욕을 되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제 7대 집행부는 전 회원 동문들과 우편·e메일·신문기사와 광고는 물론 최초로 시도한 고문·이사 초청 Brunch 간담회 등을 통하여 대화의 창을 넓히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로써 동창회의 제반 운영이 한결 투명하게 될 것이며, 동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더 많은 참여를 유발하고, 상호간의 돈독한 신뢰가 점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집행부가 새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창출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함께 한다면, 뉴잉글랜드 지구 동창회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의 전망은 배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동문과 가정이 새해에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샌디에이고 동창회장

신 세대 동문 모두 참여하는 동창회

임용갑(공대 84)

동문회 대선배님이신 민영기 전 회장님(치대61)께서 2010년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동문회 활동을 너무 잘 하셔서 기대치가 한 층 높아져 있는 상태에 한창 신참인 제가 동문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기존 회장단에서의 Full Support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감이 앞서는 것은, '전임 회장단에 대한 감사와 노고에 대한 보답을 2011년의 새로운 운영과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저와 저정용(공대81) 신임 부회장님의 굳은 다짐으로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후가 좋기로 유명하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인 San Diego 에는 모교 동문들이 약 200명 정도 되지만 현재까지의 동문 모임에는 대부분 50-60년대 학번들만 주로 참석하셨습니다. 80학번 이후 동문들이 San Diego 에 제법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이 극히 저조한 현실에 대한 개선두명(?)을 부여받고 회장직을 떠맡게 된 상황입니다.

솔 한 해 동안 San Diego 지부의 동창회장으로서 기존에 활발한 동문회 활동을 해오던 50-60년대 학번 선배님들의 지혜와 관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동창회에 80학번 이후의 신세대 동문들을 좀 더 많이 참석케 하여 모든 세대가 동참하는 동문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회장인 동시에 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 동창회의 지혜와 관록을 기반으로 신세대의 패기와 젊음이 융화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하는 동창회로서 Next Generation 으로의 디딤돌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an Diego 에서 정보통신, Bio 및 의료관련 분야에서 직장을 다니기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신세대들이 참석할 수 있는 Event 를마련해 이를 동창회 모임으로 유도, 선배님들과의 연결고리를 확대해 50·60·70·80 및 90 학번들이 모두 함께 하는, 모든 세대가 참석하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활성화된 Golf 대회, 연말 Party 외에 San Diego 에서 학업을 계속중인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Picnic 을 계승 발전시키며 소규모 인원의 자발적 모임이 가능한 등산·Tennis·족구 등의 Sports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유명인사들이 UCSD 에 안식년 휴가 또는 강연을 위한 방문시 San Diego 동문회와 만남을 주선하고 특강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우신 San Diego 동문 대선배님들의 후배들에 대한 강연 등도 주선해 보겠습니다.

또한 학생인 동문들의 회비와 Event 참가비를 낮추고 동문회가 학생인 후배들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동창회는 임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동문 개개인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 동문회 발전을 위한 Idea는 서슴지 마시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2011년 선후배님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모교 소식

와국인 교수와 가족위한 송년회 열어

지난 해 12월 9일 모교 국제협력본부 주최로 오연천 총장과 박명진 교육부총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과 함께 CJ인터내셔널에서 외국인 교수들을 위한 '외국인 교수 송년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외국인 교수는 관악과 연건 캠퍼스를 합해 200여명으로 이중 절반 가량이 부인과 자녀 등 동반 가족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

외국인 교수들은 평소에도 서로 만나기 힘들었던 동료들을 만나 연말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 총장은 "여러분은 모두 서울대 가족으로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교육부총장은 "글로벌하며U"를 함께 외치는 '한국식 건배'를 제안해 흥을 북돋았다.

전기전파학 공학부 교수인 이안 맥캐이 교수는 "2005년 처음 서울대에 왔을 때 생각외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아내의 취업문제 등 난제들이 잘 풀려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고고미술사학과 데이비드 라이트 교수는 "처음 부임시 시스템 자체가 낯설고 난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해결돼나가고 있어 안정감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안우창 교수는 "캠퍼스가 달라 이런 기회를 메번놓치다 오늘 처음 왔는데 정말 오기를 잘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 국회통과

지난 해 12월 8일 모교 '서울대 법인화' 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1년간 국회 상임위에 계류됐다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12월 2011년도 예산안과 함께 직권 상정해 이같이 된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으로 정부조직과 다름없었던 서울대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꿔 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법률공포 후 1년이 지난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조직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선임, 그리고 대통령 임명의 간선제로 바뀐다.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정의원회 추천자 1명을 포함해 7~15명으로 구성되며 반이상 외부인사로 채워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도 계속되지만, 장기재임이나 제권을 발행할 수 있다.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법인 교직원은 사립학교 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법인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일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20년간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대가 판리하던 국·공유재산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다.

모교는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조직이 갖는 경직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며 법인화를 통해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창조적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법인화를 계기로 기초학문 발전에 철저히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면서 상임위의결도 거치지 않고 통과돼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결중 없이 지난 1년간 국회 교과위에 계류돼 있었으며 원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화 교수협의회와 대학노조,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교과부가 주장하는 '기업식 효율성' 은 자유롭게 숨쉬어야 할 대학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연구와 교육의 자발성을 질식시키는 독소가 될것"이라며 법인화 추진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1□□ 3~14□Aug_Rev 2011-01-12 □□ 10:12 Page 4

동문동정 활동·출판·공연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

자선남비 봉사,주지사에 서한전달 등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문리대 62) 동문이 지난 해 연말 한인회장으로서의 직책수행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장 동문은 한인회 회장단과 함께 12월 13일 시카고 나일스 아씨 플라자에서 자선남비 모금 자원봉사에 나섰다.

또 방화리로 25년째 수감중인 동포 배 모(60)씨의 감형을 위해 편 일리노이 주지사 생일 파티 현장에서 주지사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배 모씨는 지난 1985년 2월 1일 보험금을 위한 방화 범죄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일리노이 존티악 교도소에 수감중으로 현재 25년째 수감돼 있다.

장 동문은 16일 한인회가 주관한 '불우 이웃돕기' 사업과 '시카고 한인축제'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해온 '아씨 플라자' 유수근 본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장 동문은 또 18일 40여개 시카고 한인단체들이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2010년 시카고 한인단체 연합 송년의 밤' 행사를 주관했다.

이 행사는 한인회 주최로 각 향우회와 동문회를 비롯해 체육·경제·여성·동우회 등 각 분야 33개 단체에 은행·보험업계 500여 명이 함께 한 대규모 행사였다.

이날 한인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태극기를 전달해 1월13일 '미주 한인의 날' 가 가정에서 게양하도록 권고했다.

시카고 한인회장 장기남 동문(사진 가운데)이 한인회 인사들과 함께 시카고 나일스의 아씨 플라자 건물 앞에서 자선남비 모금 자원봉사에 나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노재원 동문

'위아자'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노재원(문리대 82)·사진 오른쪽) 동문은 시카고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2회 위아자 아나바다 나눔장터' 에서 모은 기금을 지난 12월 18일 시카고 한인회(한인회장 장기남)와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문화회관 회장 강영희·사진 가운데)에 각각 전달했다. 이 전달식은 한인회 주최로 열린 '시카고 한인단체 연합 송년의 밤' 행사 가운데 부속행사로 열렸다.

'위아자 나눔장터' 는 시카고 한인사회 주요 동포 인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 등에게 기증하는 행사다.

강영희 회장은 "절실히 필요할 때 문화회관을 생각해줘서 감사하다. 이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한인사회가 단결해서 한국문화 전수와 2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장영희 회장은 시카고 강창만(의대 58) 동문의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장 회장은 그동안 장기남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에 추대됐다. 그동안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기금 모금은 물론 건물 구입과 내부 공사에 결정적 공헌으로 헌신해오고 있다.

동문 곽건용 목사

'예수와 함께 본 영화' 저서 출간

나성항린교회의 동문 곽건용 담임목사가 영화 27편을 소개하면서 인생사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 '예수와 함께 본 영화' (사진·포북 간행)를 출간했다.

곽 동문은 이 책에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환경의 녹아 형체도 없어졌지만 승리에 맛을 내고 색지 않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믿고 살았다" 며 "이렇게 믿다 보니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면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간다.

"어려서부터 영화 보는 것을 즐겼기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영화감독이 되었을 것" 이라는 그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도덕이나 윤리, 가치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신앙의 문제라고 본다면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는 더 많아질 것" 이라고 부언한다.

그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밀양', 할리웃 영화 '튜티풀 마인드' , 기독교계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다빈치코드' , 스님들의 이야기인 '만다라' 까지 다양한 영화를 다루며 성경적 의미를 포착한다.

'박하사탕' 을 통해서는 내 안의 또 다른 존재를, '솔라리스' 를 통해서는 나약한 인간과 신의 존재를, '다빈치코드' 를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와 올바른 신앙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이 책은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과 삶을 바라보는 철학적 깊이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곽 동문은 모교 사회학과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 항린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다가 1993년 나성 항린교회의 청빙을 받아 도미했다.

여민 풍류회 대표 조성보 동문

LA한국문화원서 전통예술 공연

한국 대전지역 전통예술단체 동문 조성보 대표가 이끄는 '여민 풍류회' 가 '최영란 무용단' 과 함께 특별 공연하는 '소울 오브 코리아 2010' 이 지난 12월 18일 LA 한국문화원 아리홀에서 개최됐다.

이 공연은 LA 한국문화원(원장 김재원)과 UCLA 민족음악, 대전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한 것이다.

공연 목적은 대전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전통국악 및 무용단체를 미국사회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여민풍류회 조성보 대표를 비롯한 '최영란 무용단' 등 20명의 정 단원이 참여했다.

'여민 풍류회' 는 지난 2004년 창단된 순수 국악 전통예술단체로, 모든 구성원이 연주경력이 30년 이상인 대학 교수 및 국악관련학단 수석 이상의 실력있는 연주가 및 교육가로 구성돼 있다.

창작국악보다는 전통국악에 기반을 두고 한국 음악의 저력 및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연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악 지면봉사대에 힘쓰고 있다.

조성보 대표는 국립 국악양성소와 모교 음대 국악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육부 음악교과 과정 심의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공주 사범대 음악교육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영란 무용단은 한국무용 전공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창작무용 단체로, 20여년 간 수많은 국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무용계의 창작흐름을 주도하는 무용단체로 성장했다.

전통·창작·무용극 등 많은 레퍼터리로 우리의 음짓과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우리만 예술적 역량을 널리 알려온 무용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날 '소울 오브 코리아 2010' 공연에서는 정악합주(천년만세)·전통무용(초립동)·생소병주(생황과 단소 2중주)·민속무용(태평가)·가야금 병창(춘향전 '사랑가' 중에서)·전통무용(정강춤)·해금독주(비)·무체춤, 다함께 국악민요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 날 공연 행사는 무료로 이뤄졌다.

1□□ 3~14□Aug_Rev 2011-01-12 □□ 10:12 Page 5

동문 동정 활동 • 임용 • 공연 • 강좌

주미 대사 한덕수 동문

한국면허, 미 운전면허증 전환 성사

미국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한국에 거주하는 메릴랜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앞으로 별도 시험 없이 거주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지난 해 12월 16일 메릴랜드 주 청사에서 한덕수 주미대사와 메릴리 스와임 스탤리 메릴랜드 주 교통부 장관이 약정서에 서명, 운전면허 상호 인정이 발효됐다고 17일 밝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메릴랜드 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3시간의 '알코올 및 마약 관련 교육' 과 '시력 검사' 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메릴랜드 주 운전면허증(C종 면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 메릴랜드 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세계 125개국이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증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종 면허는 국내 2종 보통면허와 비슷하다.

사진은 한덕수(가운데) 주미대사가 지난 해 L에서 한미 FTA협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조용흥 동문

'우리 아메리카은행'신임행장

한국 '우리은행' 의 동문 조용흥 경영기획본부장(부행장 · 사진)이 우리 아메리카은행의 새 행장에 내정됐다.

'우리은행' 이 지난 12월 9일(한국시간) 발표한 부행장 및 단장 인사에 따르면 조 본부장의 우리 아메리카 법인장 내정 외에도 해외영업 강화를 위해 외환사업단과 글로벌 사업단이 통합돼 글로벌 사업본부로 격상됐다.

조용흥 동문은 1956년생으로 모교 상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에식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조 동문은 지난 1979년 우리은행(당시 상업은행)으로 입행해 신용정보팀 부장, 뉴욕지점장(2004년 12월~2007년 4월) 전략영업본부장, 시너지추진실 수석부장, 시너지 추진단장,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맡아왔다.

조 동문은 미국 입국 수속 등을 완료하는 대로 빠르면 1개월 정도 뒤면 임기를 시작할 전망이다.

모교 미주센터,통계강좌 실시

모교 서울대 미주센터(사무국장 김인종)가 지난 12월 7일부터 3개월 간 매달 1회씩 '통계 교양강좌' 를 개설해 실시중이다.

이번 통계 교양강좌는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제외동포 교육사업' 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주센터 김인종 사무국장은 "이 강좌에는 모교의 현역 교수진이 각 전공분야의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 강의할 예정" 이라고 미주센터 측이 밝혔다.

교양강좌는 LA 한인타운 내 서울 대 미 주 센 터 (3699 Wilshire Blvd. #970)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오후 7시에는 백윤홍 교수(전기공학)의 '하드웨어 역사와 소프트웨어 작동원리' , 오는 1월4일 오후 7시에는 이철호 교수(건축)의 '건축물 내진설계의 최신기술' 을 주제로 강좌가 열릴다.

이어 2월 8일 오후 7시에는 최진남 교수(경영학)의 '정서지능과 사회성' 을 주제로 한 강좌가 열린다.

김인종 사무국장은 "강좌를 준비 중인 강사가 직접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는 등 일반인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이므로 많은 참석을 바란다" 고 말했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 (213)739-0234 로 하면 된다.

베다니 교회 목사 노요셉 동문

밴드 '워싱턴 패스터스 홀리' 결성공연

워싱턴 D.C. 지역의 동문 목회자 노요셉 목사(사진 가장 오른쪽)를 비롯한 5개 교회 담임목사들이 목사 밴드를 조직해 지난 19일 첫 콘서트를 개최했다.

워싱턴 D.C 일원에서 교파를 초월한 5개 교회 담임목사들이 모여 '목사님 밴드' 를 결성해 동포사회에 큰 화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목사님들은 지난 7월 '워싱턴 패스터스홀리밴드(Washington Pastors Holy Band)' 라는 이름으로 창단됐다. 밴드 멤버는 평균 연령 51세로 각각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드럼 스틱을 잡은 이성수 목사(58 · 축복장로교회)를 단장으로 리드 기타 안효광 목사(55 · 스태포드 교회), 키보드는 노요셉 목사(47 · 베다니 교회), 리드 싱어 최상록 목사(45 · 글로벌미션선교회)가 맡았다. 밴드의 섭외는 예정해 진 6개월 . 이들의 첫 결실은 성탄절을 앞둔 지난 19일 제 1회 콘서트로 맺어졌다.

비록 관객수는 6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날 목사님 밴드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보여 뭇치지 못하는 각 기성 교단의 현실에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목사님 밴드 연주자들은 "한인 동포 교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목소리로 후배들에게는 자극제의 발판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찬양 밴드가 되겠다. 2회, 3회 콘서트를 꾸준히 열어 합심하는 목회자의 본을 실천하겠다" 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성수 목사는 한국에서 미군부대를 출입하던 밴드의 드러머 출신이며 안효광 목사는 목회자가 되기 전 한 때 밥무대를 주름잡던 기타리스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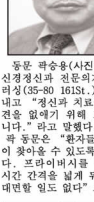
밴드 창단 후 각자 바쁜 목회 중에도 협력이 모여 연습하길 6개월 . 이들의 첫 결실은 성탄절을 앞둔 지난 19일 제 1회 콘서트로 맺어졌다.

비록 관객수는 60여명에 불과했지만 이날 목사님 밴드는 아름다운 앙상블을 선보여 뭇치지 못하는 각 기성 교단의 현실에 도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목사님 밴드 연주자들은 "한인 동포 교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목소리로 후배들에게는 자극제의 발판이 되는 솔선수범하는 찬양 밴드가 되겠다. 2회, 3회 콘서트를 꾸준히 열어 합심하는 목회자의 본을 실천하겠다" 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곽승용 동문

뉴욕 플러싱 자택에 분원 개원



동문 곽승용(사진 · 의대 65)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최근 플러싱(35-80 161St.)에 분원을 내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곽 동문은 "환자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팅해 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진료시간 간격을 넓게 둬 환자끼리 대면할 일도 없다" 고 말했다.

곽 동문은 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30년째 개인 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병원을 찾는 단골 환자가 많을 정도로 환자와 오랫동안 끈끈한 친분을 유지한다. 이 같은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인사회에도 적용하고 싶어 플러싱에 개업했다고 한다.

정신과 치료에 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를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 동문은 지난 1971년 모교 의대 졸업 후 74년 누축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에서 정신과 과정을 마쳤다. 90년대 말 스태튼아일랜드 한인회 7-8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스태튼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을 맡아 한인 2-3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플러싱 진료는 월 · 화 · 토요일(연락처 347-506-0478).

1□□ 3~14□Aug_Rev 2011-01-12 □□ 10:12 Page 6

동문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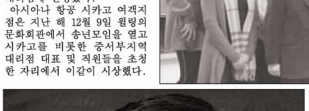
선정 • 공연 • 선임 • 활동

샤프여행사 김재환 동문

최우수 대리점 선정

김재환(사대 72) 동문이 시카고에서 운영중인 '샤프 여행사'가 지난 해 아시아나 항공이 선정한 시카고 지역 최우수 대리점에 선정됐다.

아시아나 항공 시카고 여객지점은 지난 해 12월 9일 월랑의 문화회관에서 송년모임을 열고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지역 대리점 대표 및 직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시상했다.



피아니스트 허인영 동문

'Sundays Live' 시리즈 초청공연

피아니스트 허인영 동문이 1월 16일 오후 6시 LA카운티 뮤지엄 빙 디어터에서 열리는 '선데이즈 라이브(Sundays Live)' 시리즈에 초청돼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 프로그램은 드뷔시의 '판화(Estampes)', 슈만의 '유모레스크 (Humoreske Op 20)', 라벨의 '바 발스(La Valse) 등이다.

허인영 동문은 "라크마 선데이즈 라이브에서 연주하기는 10년만"이라며 "2001년 9.11 사태가 났을 때 항공기 결항으로 이 음악회 시리즈에 출연예정이던 연주자들이 오지 못하게 되자 당시 USC 박사과정 첫 학기 학생이던 내가 연주 의뢰를 받고 며칠만에 프로그램을 짜서 일발결에 데뷔했다"고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허 동문은 5세 때 피아노를 시작해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 2005년 USC에서 피아노 연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드민 서머 페스티벌과 밴프센터 등 미국과 캐나다, 아시아 등지와 여러 뮤직 페스티벌에서 리사이틀을 가졌고, 서울대와 USC, 펜만 뮤직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바 있으며 현재는 제프먼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시찌 심포니, KBS 심포니, 서울 심포니, 볼가리아 심포니 등과 연주했으며 이자크 펄만, 로널드 레너드, 아이다 레빈 등의 대가들과 팀을 이뤄 체임버 뮤직을 연주하고 있다.

허 동문은 LA타임스로부터 "강력가 측망되는 피아니스트"로 평가됐으며, 천부적인 재능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갖춘, 지성과 감성의 눈부신 조화를 보여주는 연주자로 주류 음악계에서 호평받고 있다.

이번 라크마에서의 콘서트는 무료로 제공됐다.

명예교수 김대형 동문

교사연수회 강연

모교 명예교수 김대형 동문이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LA에서 2박3일간 실시된 '교사 연수회' 에서 '문학과 교수법' 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는 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 김경수)이 한국어 수업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한국어만 담당 교사 50여명을 초청한 연수회다.

이번 겨울 교사연수회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교사 35명을 비롯해 뉴욕·버지니아·하와이·조지아 등에서 14명의 한국어 교사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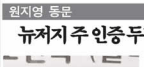
이틀 동안 열리는 연수회 수업은 '한국어 교수법, 한글교재 사용법, 효과적인 말하기, 한일합방 100주년을 되새기는 한국 역사강의 및 문학' 등으로 꾸려졌다.

한국어진흥재단 측에 따르면 현재 전국 61개 초·중·고등학교는 한국어반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중이다. 지역별 분포는 캘리포니아 41개 학교, 뉴욕 10개 학교 순이다.

한국어 진흥재단은 계절별 교사연수 개최와 별도로 한국어 교사자격 취득 주 확대및 AP교과목 채택을 위해 노력중이다.

원지영 동문

뉴저지 주 인증 두번째 한국어 교사



원지영(32·음대·사진) 동문이 지난 해 12월 뉴저지 주 교육청으로부터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원 동문은 뉴저지 주 정부가 인증하는 두 번째 정식 한국어 교사가 된 것이다.

원 동문은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회장 이선근) 강 학생으로 선발돼 뉴저지 럿거스 주립대학에서 2년 여에 걸친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과정을 마쳤다.

모교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ESL을 공부하면서 뒤늦게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원 동문은 "이번 과정을 통해 한국어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원 동문은 "한국의 예의범절 문화와 특수성을 배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추진회가 한국어 교사 배출을 위해 럿거스 대학 교사과정 장학생으로 선발됐던 5명 중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

추진회는 내년 4월께 원 동문을 한국어 정규반 개설학교에 추천할 계획이다.

현재 뉴저지에는 펠리사이드 파 고교 한 곳만 한국어 정규반이 개설돼 있는 상태다.

이선근 추진회장은 "한국어 교사가 많을수록 교육청에 한국어 정규반 개설 요청이 더욱 수월해지고 수속과정도 빨라진다"고 말했다.

이 추진회장은 한국어 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메조 소프라노 김여경 동문

브니엘 '메시아' 서 앨토로 공연

메조 소프라노 김여경(사진 오른쪽) 동문이 음악으로 감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메시아(Messiah)'에서 화려한 콘서트를 선사했다.

이는 한인 합창단 '브니엘 콘서트 콰이어(음악감독 이병천)'가 지난 해 12월 12일 뉴욕 링컨센터 에버리피셔 홀에서 개최한 '메시아' 콘서트를 통해서였다.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의미하는 '메시아'는 조지 프레데릭 헨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로 그리스도의 일생을 담은 걸작. '예수의 탄생' '예수의 수난과 속죄' '부활과 영생' 까지 총 53곡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2부의 피날레 합창곡 '할렐루야' 가 유명하다.

올해엔 앞포 김여경 동문을 비롯해 솔로리스트로 소프라노 이윤아에, 테너 존 다니에키, 베이스 제랫 지슬리가 무대에 올랐다.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연주는 에드워드 브루어가 맡아주었다.

현재 메조소프라노인 김여경 동문은 메시아에서 앨토로 노래했다.

김 동문은 모교 음대 재학 중 도비, 맨해튼 음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펠라델피아 보컬 아츠 아카데미, 이탈리아 카아리 성악 국제협회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성악협회 등지에서 수학했다.

김 동문은 산타페 오페라에서 '이도메네오' 로 데뷔한 후 버지니아·볼티모어·클리블랜드·플란드 국립오페라, 독일 할레슈타츠카펠, 서울 예술의 전당 등지에서 공연해왔다.

소프라노 이씨는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를 거쳐 줄리아드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줄리아드오페라센터 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1998년 뉴욕시티 오페라의 '카르멘' 에서 미카엘라역으로 데뷔했다.

이씨는 2002년 뉴저지 트렌턴 위넨토리엘시어터 '나비부인' 의 주연 쵸쵸상으로 공연한 이후 뉴욕시티 오페라를 비롯해 버지니아·산안토니오·아일랜드·스위스·벨기에 안트워프 등지로 이어지며 찬사를 받아왔다.

이번엔 음악감독은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줄리아드 음대와 헤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성악과 지휘, 교회음악 등을 공부했다.

1985년 20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브니엘 콘서트 콰이어는 정기 공연 4회를 열어왔으며, '메시아' 콘서트는 27차례나 개최해오고 있다.

브니엘(peniel)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을 의미한다.

'메시아' 콘서트는 뉴욕중앙일보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후원해 이뤄졌다.

동문 동정 전시 • 공연 • 활동 • 선임

설치작가 양혜규 동문

뉴욕 플러싱 타운에서 전시회 가져

베니스 비엔날레 설치작가 양혜규(39) 동문이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23일까지 맨해튼 뉴뮤지엄(235 Bowery St.)에서 전시회 '목소리와 바람: 양혜규 (Voice and Wind: Haegue Yang)' 를 열었다.

이 전시는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단일 작가로 선정됐던 양 동문의 뉴욕 첫 개인 전이다.

작품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Series of Vulnerable Arrangements-Voice and Wind, 2009)' 은 컬러풀한 베니셰(Venitian) 블라인드가 지그재그 혹은 랜덤으로 설치돼 있다.

블라인드는 햇빛을 조절하는 인테리어용품이다. 선풍기의 바람으로 흔들리는 블라인드는 공간을 유동적으로 만든다. 저 이라면 부서지기 쉬운 것이며, 집이라면 흔들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vulnerable) 공간이다. 갤러리라는 공적인 장소를 거니는 관람객은 블라인드로 인해 마치 사적인 형태에 들어온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컬러풀한 블라인드로 둘러싸인 공간은 밖으로 열려있으면서도 안으로 닫혀있는 '불안한 장소' 이기도 하다. 선풍기 바람은 기계적인 소리와 함께 계절감을 주는 장치가 아닐까. 그러나 바람조차 흘러가는 것이다.

양 동문이 설치한 향 분사기가 내뿜는 냄새는 개인의 기억과 밀접하다.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계각기 다른 향들은 관람객의 기억 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관람객은 자신의 과거에 순간적으로 잠입해가가 향 분사기 중단되면 기억에서 빠져 나온다.

지난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에 전시됐던 설치작 '밀려의 다치기 쉬운 배열- 목소리와 바람' 앞에 선 양혜규 동문.

양 동문이 마련한 인공적 공간은 시각 · 청각 · 촉각 · 후각이라는 총체적 감각을 동원해 관람객의 아슬아슬한 사고를 자극시킨다. 고요한 명상을 하기엔 '다치기 쉬운' 장소다. 배열한 작업은 하이테크 시대 다시 유목민처럼 살고 있는 현대인, 사생활조차 무방비 상태가 된 우리들이 사는 세계에 대한 비가(悲歌)가 아닐까?

작가의 의도였을까, 우연이었을까? '베니셰 블라인드' 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탄생한 발이다. 2009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작품이 통유리 갤러리에 설치돼 훨씬 드라마틱한 공간이 창조됐음직하다.

서울에서 태어난 양 동문은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후 94년 독일로 이주, 프랑크푸르트 미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97년엔 쿠퍼유니온에 교환학생으로 와 뉴욕에 머물렀다.

그는 2006년 한국에서 인천 변두리의 1970년대 주택을 무대로 한 첫 개인전 '사동 30번지' 를 연 후 세계를 무대로 작품을 소개했다.

2006 상파울루 비엔날레, 2008 토리노 트리엔날레, 2008년 LA 카운티뮤지엄의 한인작가 12인 전 그리고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 등지와 광주비엔날레, 선재아트센터, 삼성미술관리움에서 전시해왔다.

지난 해 독일 경제전문지 '카피탈' 이 선정한 '세계 100대 미디어 설치작가' 에 이름(25위)씨와 함께 92위에 올랐다.

이정주 동문

워싱턴'한미 미술가협회' 회장에 선임

이정주(사진 · VA 우드브릿지 거주) 동문이 올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HMAA)' 의 신임 회장으로 지난 해 12월 선출됐다.

이 동문은 "워싱턴 일원의 한인 작가들이 모여 공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 며 "'나' 보다는 회원과 협회를 더 먼저 생각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각각의 회원이 지향하는 작품세계를 펼치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겠다" 는 것이다.

이 신임회장은 또 "무엇보다 회원들의 화합이 중요하다" 면서 "이사와 고문, 또 회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힘쓸 것" 이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워싱턴 미술 작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시 장소의 부족" 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적으로 전시를 따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상업적인 갤러리의 경우 대여료가 높기 때문이다.

이 신임회장은 "현재 매달 다른 회원들이 DC 영사관 대기실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해 개인전을 열고 있다" 며 "회원들은 작품을 알릴 수 있고, 영사관을 찾는 사람들은 미술을 감상할 수 있어 여러모로 잘 활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모교 미대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이 신임회장은 졸업 후, 프랑스 폴 발레리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1998년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에 가입한 이후 2002년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로튼에 위치한 워크 하우스 아트 센터 스튜디오에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소프라노 이상은 동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평가받아

이상은(사진) 동문은 미 오페라계의 유망주로서 '높은 옥타브에서 낮은 옥타브까지 소화해내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동문은 올 초 국립오페라단에서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로 오페라 이도네네오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립오페라단에서 마술피리의 파미나로 한국무대 데뷔후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와 '나비부인' 에서 각각 타이틀 롤로 국립오페라단의 명실상부한 프리마돈나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유명 오페라단인 버지니아 오라의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여주인공 질다역을 열연, 워싱턴 포스트로부터 성세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얻었다.

모교 음대 졸업후 베네스 음대에서 석사학위, 맨해튼 음대에서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치고 200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내셔널 카운실 콩쿠르 미동부지역 3등을 차지했고 내셔널 오페라 어소시에이션 콩쿠르, 옵가 쿠세비츠키 콩쿠르, 커네티컷 오페라 길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마에스트로 윌 크리치필드와 커네티컷 그랜드 오페라에서 돈 파스콸레의 노리아, 레이크랜드 오페라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중 로지나, 나폴즈 뮤지페스티발에서 코지판 투테의 데스피나, 팝스타프의 나넷타 등 다수의 오페라에서 활약해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밖에도 이스라엘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열리는 인테내셔널 보컬 아트 인스티튜트의 여름 음악축제에서 탐메르무어의 루치아의 루치아를, 일본레사리오에서 마담 골든특림, 리골레토의 질다 등을 공연했다.

세종문화회 김호범 동문

제7회 '세종음악경연대회' 치러

김호범(상대 69)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는 시카고의 '세종문화회' 가 제7회 세종음악경연대회를 지난해 12월 11일 파인아츠 빌딩에서 개최했다.

한인 동포 2세들에게 고국 문화의 뿌리를 심어주고 타인종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을 선보인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등부(5학년 이하) 부문이 신설됐으며, 시니어(9-12학년)와 주니어(6-8학년)등 부문별로 바이올린 43명, 피아노 36명 등 총 79명의 학생이 출전해 지난 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대회에서는 크리스토퍼 박군(피아노 시니어부 1등)을 비롯 총 22명이 입상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에서 각각 3명의 심사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사는 정확성, 곡 해석, 리듬, 테크닉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호범 동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짐을 실감한다. 이제 한인사회는 물론 현지사회서도 역량있는 대회로 발전했다" 고 말했다.

한편 입상자 연주회와 시상식은 지난 1월 9일 오후 2시부터 예반스턴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 맬컨 홀(700 University Place)에서 열렸다.

제7회 '세종음악경연대회' 입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피아노 부문>

▶시니어= 1등 크리스토퍼 박, 2등 없음, 3등 없음, 장려 수지 리,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크리스토퍼 박

▶주니어= 1등 없음, 2등 비비안 진/로저 셴, 3등 라이언 후앙, 장려 파멜라 린,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비비안 진

▶초등부= 1등 선 최, 2등 알렉산드라 우, 3등 클린 최, 장려 데릭 정/데이비드 후,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예린 양.

<바이올린 부문>

▶시니어= 1등 제니퍼 차/에드윌리앙스, 2등 갤리아 캐스너, 3등 없음, 장려 없음,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제니퍼 차/에드윌리앙스

▶주니어= 1등 자카리 브랜든/이한서, 2등 미라 윌리앙스, 3등 캐리사 츄, 장려 없음,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캐리사 츄/이한서 ▶초등부= 1등 한나 화이트, 2등 레이첼 수, 3등 줄리안 리, 장려 없음, 최우수 한국곡연주상 줄리안 리.

1쪽 3~14Ⓒ Aug_Rev 2011-01-12 □□ 10:13 Page 8

동문 광장

미주동문 찾아 오는 정운찬 동문

조동준(의대 57)
미주 의대 동창회 전 회장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는 이곳 동문들을, 모교 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운찬 동문께서 정월에 찾아주신다니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며, 우선 환영인사를 드리고 싶다.

국내외를 통해 잘 알려진 동문이니 새삼 소개가 필요없겠지만 이곳 생활에 바쁘게 지내느라 잘 모르는 동문도 많을 것 같아 정 동문을 한 번 만나본 필자가 여기에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서울대 개교 이후 졸업한 수많은 모범적인 동문 중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누구에게나 겸손 호감을 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다.

지난 2007년 2월, 이곳 LA 에서 처음 만나본 적이 있는데, 총장 4년 임기를 막 끝내고 난 후였다.

미주 의대 동창회 LA Convention에 key note speaker로 초대돼 오셨을 때였다. 그때 부인도 함께 초대돼 오셨는데, "유학시절 이후 20년만에 처음 미국 동행 기회를 주어, 동창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크게 감명을 받았다.

한국사회에서 교수로, 박사로, 그리고 서울대 총장으로, 60평생을 정직과 성실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살아오신 인상을 주는 것 같아, 존경심을 금할 길 없었다.

이곳을 찾으실 때는 마침 국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타이에 의해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했는데, 사실 이만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됐다.

한 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여권으로부터 국립 서울대 폐지 바람이 불어 모교에 위기가 강풍되림 불아칠 때, 마치 대한민국 교육문제의 주범이 서울대인 것처럼 불어 불일 때 노 대통령과 각을 세운, 선문보드에 나온 정 총장의 모습은, 서울대를 대변하는 것은 물론 전 동문을 대변해주는, 전쟁터의 장군처럼 보였다.

무사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 2006년 총장 자리에서 퇴임하실 때는 개선장군처럼 보였다.

"생운찬씨는 카리스마가 없어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다. 카리스마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전혀 반대의 인상을 받았다.

정 동문의 자서전 '가슴으로 생각하라' 는 책에 의하면, 출생후 행운이 가득한 아이라 해서, 이름을 '운찬' 이라 했다는데, 자라면서 시 집안에 돈이 없는 것, 가난을 빼고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행운이 많이 따랐다고 한다.

공구를 떠나서, 서울 동숭동 낙산 꼭대기 전세방에서 서울생활을시작하고, 법대·미대·문리대, 그리고 의대가 줄비하게 양쪽으로 들어선, 캠퍼먼 노란 개나리꽃으로 덮이는 대학로를 지나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의 교수님기를 꿈꾸고 자랐다니, 서울대와는 일찍부터 인연이 시작된 것 같다.

그러나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의 삯바느질로 살아가는 가정이어서 가난이란 자기에게만 내려진 천형처럼 생각됐었다 한다.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날은 명절 날 아침과 제삿날이 고작이었다고 하며, 흰 밥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비 조달차 입주 가정교사로 들어가고서 부터였다.

경기중학에 입학하고서는 소개로 알게 된 유명한 수학대 교수 스코필드 박사에게서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으며, 또 영어라는 세계에 빠져들고 흥미를 붙이게 됐다고 한다.

경기고교 때는 입주 가정교사로서 공부를 계속했으며 서울대 상대에 입학하고서는 또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다니, 정 동문은 억세게 운이 좋았던 젊은 시절을 보냈다 해야겠다. 가난에 짓눌려, 변학을 포기한 젊은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였으니 말이다.

또 조순 교수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 경제학의 제발견을, 또 똘트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스승으로 도움을 받았다니 항상 행운을 같이 해 살았으며 자신의 앞길에 걸림돌이 된 것 정말 강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정치은 정신적으로도 가장 경제적이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는 평소의 소신은 우리 모두에게 실천 공감이 가는 말일 것이다.

정 동문은 정치과 성실을 평생의 생활신조로 살아 왔다니 소신과 카리스마가 충만한 인물인 것 같다.

1971년 이곳 미국으로 유학와서, 금융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곧 이어 Columbia University 에서 조교수로 2년간 강의하다가 1978년 8월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귀국했다 한다.

학문적으로 그 이상의 길을, 그누구도 걸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유학중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시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건만 가족들이 그 소식을 숨긴 통에 어머님의 장례식에 참가하지 못하고, 아국에서 애일 밤 출불을 밝히고 서울 하는을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자식의 도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

장례식 며칠 후 도착, 병석에서 쓰신 어머님의 편지에는 "이역만리에서 건안한지 늘 궁금하네. 나는 잘 있으니 아무 걱정 말게… 언제나 검양하고, 기다를 타게 되면 가마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게. 언제나 이미 바람은 이것 하나 뿐일세. 학문에 심원한 정진 있기를 간곡히 기원하네…."

정 동문이 쓴 경제 평론집 '한국 경제는 아직 늦지 않다' 라는 경제 책을 읽어보았지만, 경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온 의학도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 동문은 한국 금융학회 회장, 한국 경제학회 회장, 서울대 총장, 그리고 정치계에 입문해서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니 이제 더 올라갈 자리도 없는 것 같다.

지난번 국무총리로 계실 때 세종 시 계획안에 먼 국가 장래를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 애쓰셨는데, 충청도민의 이해부족으로 또 일부 정치인의 정쟁적인 반대 속에서 충청이전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수포로 돌아가는 계획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 일이나 역사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즈음에는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생각중이라고 한 다.

교육과 경제학에서 평생을 통해 얻은 경험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국제적으로 쌓은 신망을 가진,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가난의 아픔을 다 배우고도 가슴이 뜨거우며, 또 천운이 평생을 통해서 항상 같이 했다니, 앞으로 30년, 미래의 활동에 기대해 본다.

모교 발전기금 모금에 보탤이 되고저 이곳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그의 깊은 모교애를 제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알부남' 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정운찬 동문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다시 말해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라는 말이다.

정 동문의 앞날에 내내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정월에 재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의 마음 설레임마저 느낀다.

1885년 어제와 2010년 오늘

방은호(약대 43년입)

1885년 오랫동안 쇄국정치와 구습 등 온돈의 나라 한국은 빈곤과 무지 가운데 장래가 없는 기아상태로 허덕이고 있는 처참한 처지였다.

정치적으로는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 중국 · 러시아 등의 이권을 얻기 위해 주변국들 사이에 서로 대결에 속하는, 지랑스러운 발전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나라로 굳힘하고 있다.

참으로 그 시절과는 천양지차, 별천지라는 표현은 우리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동안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의 아름답고 우수한 경기 능력과 놀라운 성과를 감안하는 가운데 한국을 사랑하며 큰 자부심에 마음이 부풀어진다.

세계 100여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특히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서구라파의 동기 경기 강국들을 누르고 5위에 군림한 사실은 놀라운 업적이며 가슴 상쾌한 대 거사다

과거 국제경기 중 특히 수영 · 단거리 · 육상 · 스케이트 등은 우리 한국은 체격과 체력상 유럽 선수들과는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여 상대가 안될 정도였기 때문에 우승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겨우 참가할 지경으로 빈약했던 그때도 파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어떠한가! 올림픽의 꽃인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성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위대하다.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며 기술 · 연출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 사상 최고점 기록은 참으로 당연한 귀결로 경탄 · 감탄할 따름이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날로 향상하고 발달해 완연히 달라지고 있다.

세계 광고시장에서 최고 비싸며 네온 사인 광고에 초미라고 말할 수 있는 뉴욕 중심지인 타임스 스퀘어에는 우리 한국의 현대 · 삼성 · 기아 · LG의 전란하고 화려한 색채의 네온사인은 수많은 관광객을 황홀한 지경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얼마 전만 하여도 우리 한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환치될 모기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 날은 한국의 냉장고 등 제품이 그 유명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활개치고 있지 않은가?

해방이 되던 1945년 우리 한국 전국을 휩쓸어도 자가용 수는 100대도 안된다고 추정한다. 그러한 우리나라는 오늘날 날한 발발꾸국이 자동차 법람으로 주차할 곳도 없어 큰 골치거리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부터 62년 전인 1948년나의 미국 유학시절만 해도 한국이라는 명칭은 캘리포니아 어느 작은 동네 정도도 많은 미국인인 인식하고 있었다.

그 정도도 그야 말로 미지의 나라의 존재였다.

그런데 오늘 날은 어떠한가. 너무나 변화 · 변천 · 발전했다.

오늘 날 첨단산업인 IT · 전자공학 · Bio-Medical 등은 물론 조선 · 토목 · 건축 · 의료 · 영양 물 · 음악세계 등 폭넓은 많은 분야에서 우리 한국은 지도적 역할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한강의 기적' 이라고 말리진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지 고찰하고 깊이 인식하며 그 의의를 감사하며 기려야 마땅하다고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합해 성취됐음이 분명하다.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 · 근면 · 독실,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열정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부흥, 미국과 UN 가입, 미국의 원조 등이 합축돼 있다는 데도 기인한다.

그러나 더 심오한 근본적인 원원이며 활력소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인천)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중평된다고 확신한다.

1883년 고종황제의 보빙사절단 일행은 시카고에서 위성턴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갑리교 목사이며 교육가로 동양성교회 큰 지지자인 가우저 박사를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가우저 박사는 제정적으로 크게 지원할 뿐 아니라 한국 선교의 중요한을 적극 강조했다.

그 결과 마침내 아펜젤러 목사와 스크랜튼 여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에 오셨다. 이 때 언다수드 박사도 같은 날 오셨다.

널리 알려진 대로 세 분 선교사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시작하였다.

아펜젤러 목사는 배재학당을,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학당을 각각 1885년과 1886년에 창설하였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은 한국 신교육의 효시이자 새 문화와 더불어 새로운 생활과 사상을 우리나라 온 백성들에게 부일하는 일대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남녀노소 귀천없이 전파 되며 계몽운동이 싹트게 되었다.

2010년 오늘 125년 전인 1885년 당시에를 회고하여 보며 선구자 선교사님과 배후 후원자의 사랑 · 봉사 · 희생을 뼈 속 깊이 마음 속으로부터 기억하고 감사하여야 마땅하고 당연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기쁨과 성취의도가니 가운데서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낸 우를 범하지 말고 감사와 보은의 겸허한 자세와 마음을 갖자.

1□□ 3~14□Aug_Rev 2011-01-12 □□ 10:13 Page 9

미주재단 · 모교 장학금 기부 · 동창회관 · 국제 하계강좌

50만달러 장학금 약정 김기태 · 노정옥 동문 부부

미주재단에 1차 10만 달러기탁

향후 4차 나머지 40만달러 전달 계획

미 플레도대 의대(2006년 오하이오 의과대학에서 플레도대학으로 합병) 교수로 30여년 간 재직한 김기태 동문(의대 52년 입)이 지난 2010년 12월 17일 모교 미주재단에 장학기금 10만 달러를 1차로 기탁했다.

김 동문은 총 50만 달러의 장학금을 향후 4년간 10만 달러씩 4차례에 걸쳐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김 동문의 이번 장학금 기부에는 가족들의 영향이 컸다.

김 동문은 "모교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은 큰 아들의 제안" 이라며, 그 계기를 밝혔다.

아내 노정옥 여사 역시 김 동문과 함께 의사의 길을 걸으며, 검소하고 소탈한 생활을 해왔다.

연구와 업무 차 호텔에 머물게 될 때도 김 동문은 평소의 검약한 생활 철학대로 값싸고 소박한 호텔에서 머물어 왔다.

김 동문은 누구보다 자신의 뜻을 존중해주고 지지해 준 아내 노정옥 여사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부부의 이름을 딴 '김기태 · 노정옥 장학기금' 을 실립했다.

김 동문은 현재 플레도 대학 의대 명예 교수로, 재미 한인 병리 의사협회 회장(1998년~2000년)을 역임했다.

김 동문은 1982년도와 1990년도에 각각 3개월간 모교 객원 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김 동문은 'A Practical Guide to Surgical Pathology with Cytologic Correlation: A Text and Color Atlas' 를 비롯해 수 많은 학술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8월,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에게 주어지는 'Distinguished Korean People living abroad who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ir father land' 로 선정되기도 했다.

총 50만 달러의 장학금 기탁을 약정한 김기태 · 노정옥 동문 부부의 최근 모습이다.

성실히 노력하는 가능성 있는 학생이 1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운 생활환경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까 염려하며 김기태 동문은 "학업성적에서 1등 하는 학생보다는 생활환경이 어렵지만, 정말로 가능성과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소망" 이라며 장학생 선정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동창회관 기부명패 벽체 이미지 결정

느티나무에 단과대별 가지 형상화

모교 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의 이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명패와 규모, 그리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담는 디자인 등의 개략적인 윤곽이 밝혀졌다.

모교 동창회관 기부명패 벽체 이미지 결정

모교 동창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의 이름을 영구 보존하기 위한 명패와 규모, 그리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담는 디자인 등의 개략적인 윤곽이 밝혀졌다.

모교 총동창회는 동창회관 기금 출연자에 대한 명단 벽체 제작 개념을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금 출연자 명단은 동(신주)으로 제작하며 각각의 명단을 일으로 표현하고 각 단과대학별로 큰 가지를 형상화 하며 전체적으로는 서울대의 상징인 느티나무의 형상이 되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참조).

이중 ▶1천만원 미만 출연자(5천657명)는 '관부 x 100% ▶1천만원 이상 출연자(152명)는 T:1mm 스카시 부식 x 150% ▶5천만원 이상 출연자(40명)는 T:3mm 스카시 부식 x 200% ▶1억 이상 출연자(65명)는 T:5mm 스카시 부식 x 300%로 제작해서 보존한다는 것이다.

모교 국제 하계 강좌 프로그램

6월27~7월29일 총 5주간 실시

모교 국제협력본부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본교및 해외 유수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하계 강좌(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 여름에는 미주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세계 11개국에서 140여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을 정도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하계 강좌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으로 크게 두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수강 학생 수를 늘이고 이에 따라 강좌 수도 기존의 15개에서 30개 정도로 확장할 계획이다. 둘째, 강좌 내용도 일반과목 외에 한국과 아시아에 대한 이해 넓히기를 목표한 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점은 바로 미주 지역 동포 학생및 동문 학생들의 프로그램 유치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의 국제 하계 강좌 기간은 6월27일(월)부터 7월29일(금)까지 총 5주 동안이다.

수업 시간은 매주 월 · 수 · 목 3시간씩 총 45시간으로 3학점, 혹은 화 · 목요일 3시간씩 총 30시간 2학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 페이지(http : //oia.snu.ac.kr/summer)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정보는 2월 말~3월 초 사이에 업데이트시킬 예정이다.

9만달러 장학금 약정 김기봉 · 신경은 동문 부부

5만달러 이어 2차 2만달러 기탁

김기봉(공대 63년 입) · 신경은(문리대 65년 입) 동문 부부가 모교 교수로 제직한 양친의 뜻을 기려 지난 2009년 12월 2일 모교에 9만 달러의 장학금 출연을 약정한 바 있다.

김 동문 부부는 이를 위해 최근 서울대 미주재단을 통해 약정 장학금 중 2만 달러를 출연(2010년 12월) 했다. 이는 1차 5만 달러 출연(2009년 12월)에 이은 2차 출연이다.

김 동문 부부가 출연한 장학금은 '네 교수 장학기금(Four Professor Scholarship)' 으로 조성되어 2010년에는 국어국문학과와 의류학과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네 교수 장학기금' 이란 김 동문 부부의 뜻에 따라 모교의 4개 학과 즉 국어국문학과 · 의류학과 · 영어교육학과 · 국사학과의 제학생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네 교수 장학기금' 의 출연은 김기봉 · 신경은 동문 부부가 양친의 모교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신경은 동문의 양친은 신기범 · 김분옥 교수로, 각각 모교 사대 영문학과와 농대 농가경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김기봉 동문의 부친은 모교 문리대 사학과 김성칠 교수며, 모친인 이남덕 교수는 서울대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김 동문 부부의 형제 9명 중 8명이 모교 출신으로 이른바 '서울대 가족' 이다. 김기봉 동문은 과거 서울대 제학시절,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다.

김 동문은 "한 기업에서 출연한 장학금이었는데 그 시절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따라서 우리 부부의 양친인 네 분의 뜻을 기리며, 미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며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라며, 이번 장학금 출연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수혜 학생들에게는 김기봉 동문의 부친인 사학과 김성칠 교수의 저서 '역사 앞에서' 라는 서적이 주어질 계획이다.

김 교수의 '역사 앞에서' 는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6.25 한국전쟁의 참혹한 현실에 처했던 입장에서 1950년 7~9월 3개월 간 기록한 일기를 저서로 편찬한 것이다.

미주재단은 기부의 가치를 높이고 생활 속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김 동문 부부와 같은 기부자의 뜻과 정신을 모교 동문 및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제20차 평의원회의 6월10~12일

미주 총동창회 제20차 평의원회의가 오는 6월 10일(금) 건야제를 시작으로 12일(일)까지 2박3일간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계획이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City of Industry의 Pacific Palm Resort다.

이번 제20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제10대 미주 총동창회장단(회장 송순영)으로부터 제11대 총동창회장단(회장 김은종)으로 업무가 이양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1쪽 3~14호Aug_Rev 2011-01-12 ▯▯ 10:13 Page 10

논 단 이슈 칼럼

"Pax Americana는 지속될 것인가"

장석정(법대 68)
일리노이주립대 경영대 부학장

이제 7-8년, 아니 10년은 족히 됐을 것 같다. 미국의 기운이 다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

"미국은 망하고 있다. 미국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미제국은 몰락하고 있다.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미국의 시대는 지났다. Pax Americana는 종언을 고했다" 등의 말이 안팎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다. 최소한 할머스 존슨·니얼 퍼거슨·노암 촘스키·새뮤엘 헌팅턴·폴 케네디·이마뉴엘 월러스틴·마이클 만·패트릭 부커넌·조셉 스티글리츠·이마누엘 토드 같은 저명인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이미 1970년대 베트남전 패전후 존들리기 시작했다 하고, 9.11테러를 미제국 몰락의 신호로, 또 어떤 이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온 미국경제의 쇠락을 결정적인 증좌로 보기도 한다.

많은 학자들이 옛날 로마제국이 어느 폐드라 · 몽골 · 오스만 터키, 19세기 대영제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제 'American Empire' 도 비슷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막강했던 미국의 경제력이 이제 기덜난 상태라고 한다. 이미 1조5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와 무려 14조 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를 안고 있는데 계속되는 금융위기, 소비침체 속에서 실업률은 두자리 수에 근접하고, 5천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으며,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4천400만명이 빈곤수준 이하에서 헤맨다고 있다.

안으로는 산업기반시설 노후화 와 투자침체로 생산성 저하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밖으로는 중국 · 인도 · 한국 등 새로운 경제권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초강대국 미국이 그간 과도한 군사력 확장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중이호랑이 신세가 됐다고 주장한다. 20-21세기에 이르는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고 또 도처에서 상이한 문화 · 종교 · 이념이 충돌할 때마다 분쟁에 개입해 엄청난 비용지출은 물론, 이로써 국제지도력이나 방위력도 크게 약화됐다고 한다.

과거 국제정치나 외교면에서 다른 나라를 능 리드하던 미국이 이제는 동맹국들로부터도 냉대받게 됐다. 미국 이외에 이미 러시아 · 프랑스 · 중국 · 인도 · 파키스탄 ·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또 북한 · 이란 · 이라크 · 리비아 · 아프헨티나 등도 이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만이 유일한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교육 · 기술 · 문화 · 종교 · 가치관 등 Soft Power 부분에서도 옛날의 영광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 미 초중고생들의 수학 · 과학 등 학력이 다른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학생들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들리고 대학교육에서조차 이제 취업 · 중국 등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문화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돼온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도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계나 재계에서는 부정과 비리와 부도덕이 흔히 저질러지고 있고 할리웃영화나 TV드라마는 폭력 · 섹스 · 동성애 · 결손가정의 얘기로 얼룩지고 있다.

인종갈등에 총기사고 등 범죄가 만발하는 가운데 거리는 불안하고 교도소는 만원이다. 사람들은 이제 엄마가 둘인 아이를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저활력 대신 무기력 냄새 더 흔분하고, 심계병 대신 콘돔 이야기를 더 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사회는 위선으로 포장된 타락한 소돔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쯤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미국은 끝나가고 있다, 또는 이미 끝났다" 는 말에 수긍할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이에 대해 "아니다. 미국은 아직도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미국의 내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조지 프리드먼 · 파리드 자카리아 · 폴 크루그먼 · 프랜시스 후쿠야마 · 워렌 버핏 · 존 이이 켄베리 · 조지 소로스 · 토마스 프리드먼 · 조셉 나이 · 마이클 칵스 · 로버트 케이건 등 인사들이 여러 이유로 미국은 지금 장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저력을 갖고 있다면서 위의 미 쇠퇴론 · 망국론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우선 미국의 경제력이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지속성장중인 중국이 2030년경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규모(GDP)는 14조2천억 달러로 세계 4분의 1에 이르며 중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를 합친 것보다 크다. 특히 미국경제는 기술 · 지식 · 정보 · 서비스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나노기술에서 미국이 보유중인 특허는 여타국을 합친 것보다 많고, 바이오텍 분야의 산업가치는 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중국 등에 다 빼앗겼다지만 주목할 사실은, 가령 핵폭이 아이콘이나 아이폰을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제품 기술과 디자인과 유통으로부터 애플이 입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같이 신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다이내믹한 경제 기반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농경산업 뿐이었던 로마제국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르며 또 노동집약과 시장개방에 따른 초기 고속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과도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아직도 해외로부터 직접투자 유입이 가장 큰 나라고 가장 친기업적 나라 중 하나인 반면, 인구변화의 추세에서는 유럽 · 일본 · 중국 · 한국 등에 비해 활전 덜 심각하다. 즉,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률 저하 등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지만(예컨대, 2050년이면 유럽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1/3을 넘게 되고 지금 8천만이 넘는 독일 인구는 5천900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미국은 꾸준한 이민자 유입으로 젊고 풍부한 노동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내에 반이민 정서가 퍼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민에 관해 활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미국의 대학에서 각 분야에 걸쳐 수여되는 박사학위의 절반(과학분야는 거의 75%)이 외국태생이며, 실리콘 밸리 창업자중 절반이 외국태생이거나 이민 1세들이라는 사실이 미 경제가 젊고 다이내믹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엄청난 규모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에 관해서는 아이러니컬한 설명이지만, 미국과 교역으로 잉여금을 벌어들인 다른 나라들이(좋든 싫든) 이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게 됨으로서 미국은 적자를 보전하게 된다고 한다. 미국 덕에 돈을 벌게 된 나라들은 그래도 미국이 가장 나은 투자대상이기에 그 돈을 미국에 다시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달러가 recycle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경제가 침체해 소비지출이 하락하면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공장들이 한가해지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자국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투자하고 돈을 빌려준 미 경제가 침둥하기를 원치 않고 또 그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쌍둥이 적자를 계속 안은 채 경제를 굴려나갈 수 있을까?

핀잉 이 문제가 크게 터져 버린다면 경제대국,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이 아닌가.

문제가 어려운 만큼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와는 다른 시기,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지난 1990년대 미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도 비슷한 문제가 계기 된 적이 있다. 호황 속에서 증시가 상승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들림없이 나타나는 고민통이선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인플레이션은 높아지지 않았다.

지금도 경제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 가지고 있는 경제이론으로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이론들이 오늘날의 급변하는 현실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과 노동 등 경제 요소들이 최소성으로 제한되고 제도적으로 규제되며 아울러 국제간 이동이 여러겹인 시절 개발된 경제이론이라면 지금처럼 자본 · 노동은 물론 기술과 지식과 정보의 이동이 국경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분배, 순환, 재창출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처럼 경제가 달아오르니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고, 무역적자나 재정적자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어쨌든 경제대국 미국을 아직도 군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미 경제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 · 기술력 · 생산성을 가진 것은 물론 풍부한 노동인구와 방대한 소비자 경제를 바탕으로 한 든 자구력 · 복원력과 함께 큰 절긴 저구력 ·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저물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가 아니라 노동력, 인구감소, 기술혁신 부진을 당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이라는 말이다.

미국의 군사력

한편 미국의 군사력도 여기저기서 테러와 전쟁을 치르느라 뫼로하고 허약해졌다지만, 아직도 미국의 국방비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의 절반이 넘고 (중국은 미국의 7분의 1), 미군은 세계 130여개 국에 750 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군사기지와 시설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R&D(조사연구)에 온 아붓는 예산도 여타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럼에도 미 국의 군사지출 총액은 냉전시대에는 GDP의 10%까지 달했으나 지금은 4.18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로 세계의 판도와 균형에 영향을 줄 주요 군사력으로 미국 · 유럽연합 ·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중국 · 일본 · 인도를 꼽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군사력은 NATO를 주축으로 유럽연합과 연대해 함께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시아 3국에 대해서는 다각적 군사동맹과 외교를 바탕으로 그 중 어느 한 나라에 대한 군사력도 미국이 나머지 두 나라와 함께 대응함으로서 능히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아울러 군사력도 크게 증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우주탐사와 개발에 관해서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필요하고 또 원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세계의 군대, 세계의 경찰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Soft Power

미국의 문화력 또는 Soft Power는 어떤가?

비관론자들이 지적하듯이 미국은 이제 극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해 교육 · 기술 · 문화 · 종교 · 가치관 등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크사회가 됐단 말인가?

여기서도 물관이 반이나 비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반이나 찼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몇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을 들어 미국의 Soft Power가 건재함을 증명하려 한다고 있다.

우선 아직도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들의 대부분 미국에 있고 이 대학들이 세계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이냐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세계 우수대학 랭킹을 보면 상위 10개 중 7-8개가 미국 대학이고 50대 대학 중 절반이상이 미국대학들이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학생의 30%를 미국이 빨아 들이고 있다. 또 미국이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GDP의 2.6%에 달해 1%를 간신히 넘는 유럽이나 일본과 대조된다.

미국의 초중등교육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뒤져진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나타난 수치만 보고 예기할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특유의 다양성 · 보편성이 교육측면에 적용될 때 평균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의 학생들의 학력은 최고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낮은 점수가 전체 평균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미 교육의 평등성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교육은 학생들이 높은 시험점수를 얻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호기심과 모험심과 창의성과 의욕을 북돋

1합 3~14합Aug_Rev 2011-01-12 10:13 Page 11

논 단 이슈 칼럼

아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 학생들이 각종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미국인들이 놀라지만, 다른나라 학생들과 교사들은 미국이 어떻게(show-and-tell)같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주는지를 배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 자유시장경제에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와 혁신의 근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전깃불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발명과 혁신을 이루어 왔고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닷컴·이베이·에플·아후·구글·페이스북 등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창의적 기업들을 탄생시켰다.

미국은 글롤리장에서도 그동안 유추얼 펀드부터 파생상품, 금융공학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상품과 기법을 창출하는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기업의 신상품 개발 연구소에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사무실에서 NASA의 우주개발연구소와 각 대학 연구실에서, 그리고 할리웃 스튜디오에서 미국인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맥도널즈·스타벅스·애플·페이스북·할리데이비슨·디즈니·할리웃·브로드웨이·WSJ·NYT·CNN·ESPN·NBA·PGA·Major League·Ivy League·MBA·TOEFL·American English·Peace Corps·Habitat for Humanity 등을 들어볼 때 미국의 Soft Power를 볼 수 있다.

지도층의 도덕성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미국사회의 총체성은 아직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철저한 개인책임주의와 성과주의(meritocracy) 아래 각 분야에서 일리티즘(elitism)과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트론과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도 미국에서 완성, 지금도 그것이 가장 잘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층에 요구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아직도 기부와 자선, 자원봉사, 헌혈과 장기기증, 입양 등을 통해 Good Samaritainism을 실천하며 사는 미국인들이 많다.

지금도 여러 기독교 재단, 단체들이 미국 뿐 아니라 세계 미 곳에서 학교, 병원, 빈민들을 위한 숙소·급식소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 후생, 질병 퇴치, 빈민구제, 가정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있어 이게 과연 기독교의 나라인가 의문이 생길 정도로 세속화(secularized)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역사·문화 속에, 삶 속에 짙게 배어 있는 기독교정신은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 속, 몸 속, 핏속에 아직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래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인(Humanus Americanus)

흔히 미국문화의 속성으로 개인중심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등을 든다. 미국문화는 또 평등성·다양성·탐구성·보편성 등으로도 묘사된다. 인권을 중시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개인의 책임과 프라이버시를 같이 추구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되 창의성을 도모하는 것도 미국문화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과 특질이 한 데 어우러질 때 미국문화는 강한 흡수력·동화력·통합력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 "E Pluribus Unum(다수로부터 하나를)"이라는 미국의 표어가 말해 주듯 미국은 '다양성을 갖춘 하나됨' 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문화의 합리성·평등성·실용성·복합성·탐구성·융통성, 그리고 흡수력·동화력·통합력이 미국을 선택의 나라, 기회로 나라로 만들어 왔고 강대국으로 키워 왔다.

그런데 미국문화가 이러한 성향과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미국인들이 그런 성향과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이야말로 정말 제미있고도 특이한 사람들이다. 이 특별한 species를 'Humanus Americanus' 라고 불러 보자.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Pax Americana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는 가장 중극적 근거는 이 Humanus Americanus에게 최고·최상의 가치와 목표인 '자유(freedom)' 에 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인 앞으로도 자유의 나라로 보전되는 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유를 추구하고 쟁취하고 수호하고 보전하겠다는 다짐이 있는 한 Pax Americana는 지속되리라고 감히 생각해 본다.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봉건주의를 경험하지 않고 처음부터 자유주의로 출발한 나라다. 그래서 이 'Humanus Americanus' 에게 자유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 어떤 인위적인 제도나 조직이나 정책으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은 미쳑 반미민정서나 국경봉쇄니 하는 말이 들리고, 미국의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가 힘들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자유의 나라로 남으리라는 데 의심이 없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남게 하고 Pax Americana를 지속시키는 최대의 무기는 자유 그 자체인 셈이다.

Pax Romana, Pax Mongolica, 그리고 Pax Britannica 모두가 한 때의 영화를 뒤로 하고 끝을 보았듯이 언젠가 Pax Americana도 막을 내릴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자유가 숨을 거둘 때가 아닐까.

2010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박병선 박사

'직지심체요첩' 의 대모(代母)

귀국했다가 직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수술 및 3번의 항암치료 끝에 최근 퇴원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이국 땅에서 평생을 학문연구에 헌신한 박 동문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모교 사범대 교수회와 동창회, 역사교육과 동창회 등 많은 개인과 기관에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해 소기의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1999년 은퇴 문화훈장, 2001년 KBS 해외동포상, 2007년 국민훈장 동백장, 비추미 여성대상 특별상, 2009년 자랑스러운 서울대 사범대 인상,그리고 2010년 개교기념일에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을 받았다.

▶수상소감 (요지) = 오연천 총장님, 이장무 전 총장님, 임창수 총장협의회장님, 교수님 여러분, 교직원 학생 여러분. 오늘 모교 제64주년 개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저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교를 빛낸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심을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저는 1955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 당시 스승이었던 李丙燾교수님께서 "프랑스에 가면 병인양요 때 강화도에서 가져간 유물들과 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찾아보라" 고 간곡히 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으며 그저 공부하는 학생, 연구하는 학자의 자리에서 제 소망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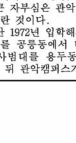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 선조들께서 이뮈놓으신 찬란한 문화유산이 세계에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가득하게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쇄(石)술)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해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보급시키게 된 것을 3차 정보혁명이라 평가하는데, 이제 정보혁명의 4단계라고 해도 컴퓨터를 탄생시킨 것도 금속활자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유산은 계승발전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문화의 중심국가로 건설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모교가 지성 있는 세계 최상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이 사회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노벨상을 기대하며



이동식(사대 72)
KBS 정책기획본부장

필자가 모교에 갔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은 관악 1회 졸업생이란 것이다.

지난 1972년 입학해서 교양과정부를 공릉동에서 다니고 본과 사범대를 용두동에서 2년 다닌 뒤 관악캠퍼스가 처음 문연 1975년 이사와 1976년 2월 26일 첫 졸업식을 운동장에서 했으니 관악1회 졸업생이라고 해도 하자가 없을 것이다.

모교를 자주 찾을 기회가 없었지만 지난 봄 아카시아 꽃이 만발할 때 교수회관 옆 술맛식당에서 우리 영어교육과동창회에 참석하는 교정을 들아보니 이 보통 달라진 것이 아니다.

몇 년 동안 외지에 있다가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찾아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교사와 교실이 너무 작고, 그렇게 넓어 보이던 교정이 줄어들어 마치 난장이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는데, 35년 만의 교정은 곳곳에 나무들이 우거져, 예전 삭막해보이던 각의실 창문에 나뭇가지들이 걸려 운치를 더해주는 것이, 이제야말로 첫 이사 때의 어색함을 벗고 완전히 역사가 있는 아카데미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자란 것은 나무의 키만이 아니었다. 필자가 2001년 영국 런던 북파원으로 있을 때 타임스 신문에서 본 모교의 대학순위는 세계 150위 언저리였지만 2005년 처음으로 100위 권내로 들어온 뒤 2009년 47위까지 올라갔다. 2010년은 평가기준이 논문 인용수를 새롭게 추가하는 바람에 순위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50위권 내로 평가받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물론 외국에서 매긴 그 대학 순위가 보편적 평가기준이 될 수 없지만 모교가 국제적인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모교의 키가 많이 자랐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가을이 돼 모든 나무의 잎이 떨어지면 비로소 나무의 실체가 드러난다. 작은 나무들 일에 가려 진정한 크기를 몰랐다가 작은 나무들 사이에서 우뚝서 있는 큰 느티나무를 발견하는 것처럼 모교 사범대 교수회와 35년후 그것뒬 커진 것을 확인하는 것은 정말 보람찬 일이다. 음성등장하던 강의실 연구실 건물이 관악산 골짜기를 메웠고, 밤에도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는 모습에서 다시 우리 사회의 큰 느티나무가 된 것이리라.

느티나무는 오랜 연륜의 상징이다.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성찰을 준다. 번개기 이상 머물었던 옛 교정을 떠나 관악산에 둥지를 튼 지 35년, 관악캠퍼스는 아주 큰 느티나무다.

지난 해인 2010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발표된 이제 '서울대학교' 라는 느티나무에서 모교 출신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로 학문은 열매가 새롭게 맺히기를 기대해본다. 사실은 상보다는 그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큰 공헌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1쪽 3~14 Aug_Rev 2011-01-12 10:13 Page 12

동문광장 수필 · 칼럼

지난 가을의 울트라 마라톤

전현일(농대 62)

새벽 5시 반 완주지점에서 출발점까지 가는 셔틀버스 시간 4시에 깨도록 알람을 해놓고, 밤 9시가 되기 전 호텔 방 전등을 끄고 잠을 청했다.

오늘 집에서부터 다섯 시간을 차로 왔으니 고단할 법도 한데, 두 번이나 방중에 깰터니 새벽 2시 반에 깨서는 아예 다시 잠이 들 것 같지 않았다.

오늘 완주 선을 지나는 순간을 상상하니 그 상상만으로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돈다. 잠이 오기는 틀렸다. 호텔 방바닥에 타월을 깔고 여기까지 순전히 손 얼 칠대의 젊은 친구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요가를 시작했다.

약 30-40분 하고 나니 다행히 대변기가 느껴진다. 그게 어떤 울트라 마라톤에 제일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다. 내 생리적 시계대로라면 아침 7시나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뛰는 도중 갑자기 변을 봐야 한다면 낭패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입주일 전부터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 오늘 아침처럼 요가를 하면서 생리 시계를 몇 시간 앞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 어느 정도 성공한 모양이다.

오늘 입기에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미욱이 번호판을 앞 뒤에 안전핀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상의를 바꾸려면 안전핀 여덟 개를 조작하는 것이 뛰는 중 쉬운 일이 아닐 것이어서 그냥 긴팔을 입기로 했다.

2시 반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가야 할 시간인 5시가 거의 돼가는데도 할 일이 아직 남았다. 몸 곳곳에 Body Glide · 바세린 · 반창고를 발라 물집이나 피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시가 좀 지나 셔틀버스가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더니 벌써 사람들이 거의 다 타고 있었다. 이번 경기는 80km 정장을 뛰는 Solo가 100명, 구간을 나누어 릴레이 형식으로 뛰는 사람이 400 명, Solo는 모두 7시 출발, 릴레이 팀은 세시간에 나누어 출발했다.

Solo의 뒤이 구분을 ▶40 미만 ▶40~49 ▶50 이상, 이렇게 셋 뿐이니 그 이상은 알아서 하라는가 보다. Solo는 번호판에 크게 표시가 돼 있다.

내 번호는 66번, 속력이라 좋아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선착순으로 자기 나이를 번호로 썼다고 한다. 그런 번호를 앞 뒤로 붙이고 뛰니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두 내 나이를 알게 됐겠지. 어쩐지 나를 알겠리가는 젊은이들이 나한테 한 마디씩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인다. "축하한다, 대단하다,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어떤 여자는 사방도 하나 주면서 "도움주면 하나도 사방하지 말고 다 받으라" 고 중고도 해주고. 그게 모두 내 나이를 보고 하는 소리였는데, 난 또 편히 내 뒷모습이 좋아서 그러나, 하고 오해했네. 모든 릴레이 팀이나 응원자들이 Solo 주자를 격려해주고 특별히 베려해주는게 고마웠다.

대략 10 km 간격의 휴식처에서 내가 가면 모두 Solo가 간다면서 박수응원을 해주고 화장실에 줄을 서면 Solo 가 있다고 모두 비켜주고 내가 먼저 쓰게 한다. 그들도 모두 사진 다투어 뛰는 분들인데 Solo에게 특별대우를 해줘 고맙고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돈다.

25마일 절반지점을 5시간 15분에 통과, 어쩌면 11시간 내에 완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그렇게 많이 앞서면 안된다는 경험자의 말이 생각나 억지로 지워버렸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최장거리는 마라톤 거리인 26.2마일,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지금부터는 미지의 영역이라 동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조금 더 가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허벅지에 쥐가 올라 그 자리에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오던 사람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어렇게 가기들이 도와줄 수 있겠느냐" 고 자원한다. 자기들도 힘겨게 투쟁하던지도, 쥐가 오르는 쪽다리에 하나씩 몸무게를 옮겨가며 잠시 서 있는데 처음에는 미 통증이 심하더니 서서히 불리기 시작한다. 천천히 걸음을 시작해 보려하니 오른 쪽 다리 위 허벅지에 다시 쥐가 난다.

내가 이번 울트라를 준비하면서 시 친구들에게 한 말은 "다리 근육에 쥐가 나면 그만일 것" 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쥐가 나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뛸 수가 없고 통증도 심하다.

예전 명상을 배울 때 온몸 근속을 이완하던 것이 문득 생각나 그 자리에 서서 명상을 하는 식으로 다리의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해 보았다. 그리고는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내딛었더니 별 이상이 없다.

점점 빠르게 걷다가 느린 속도로 뛰기 시작했는데 쥐가 다시 나지 않는다. 그래도 반은 걷고 반은 조심스레 뛰어 다음 휴식처에 가니, 우리 Running club의 여자가 나에게 따뜻한 수프를 준비했다가 주었다.

그 수프가 무척 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나 맛이 있던지.

언어상에 나타나는 관념의 차이

김태수(의대 57)

개개인의 생각은 다르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의 관념은 동일하며 그러므로 다른 언어상에 나타나는 관념들의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 같다.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이면 언어를 쓰는 집단의 깊은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에선 동사의 시제, 즉 과거 · 현재 · 미래가 뚜렷이 있을 뿐 아니라 3인칭 현재까지도 's' 를 써서 확실하게 한다. 이것은 우리 말엔 없을 뿐 아니라 중국어 · 일본어에도 없는 현상이다.

중국어에는 3인칭 현재는 고사하고 시가 전혀 없다. 과거 · 현재는 물론 미래도 없다. 여기에 한시(漢詩) 한 수를 소개하겠다

昨日一花開(어제 꽃 한 송이 피었다) 今日一花開(오늘도 꽃 한 송이 피었다) 昨日花已老(어제 꽃은 이미 시들었으나) 今日花正好(오늘 꽃 꽃은 참으로 싱싱하구나)

'開' 는 시(時)가 없이 '피다' 라는 사실만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昨日' 이라는 과거가 엄연히 있는데 동사까지 들먹일 것 없지 않으냐는 것이 중국사람들의 심오한 관념인으로 생각된다.

저자도 중국인들의 '심오한 관념' 에 매력을 느끼는 바다.

과거 · 현재, 그리고 미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3인칭 현재도 꼭 's' 를 붙여야 알아들을 수 있는 '관념' 은 내 70평생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다

그렇다고 "He go to school" 이라고 고집하면 두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관념의 차이점을 모르는 무지 내지 무식자란 오명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이등 '김벽수' 의 '벽' 자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 생각했을 때 그 관념의 차이를 볼았던 것은 물론,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조차 할 줄없던 시절이었다.

한 글 의 'ㅣ' 는 'ㅏ' 에 'ㅣ' 를 더해 만들어진 것이란 관념 밖에는 몰랐던 시절이라 'TAIK' 라고 해서 영어로써야 되는 문서에 'Taik Soo Kim' 이라고 기재했었다

미국에 이민으로 1966년 왔을 때 나를 '딕익수킴' 이라 부르지 '태수김' 이라 부르는 미국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제야 생각했던 것은 '한국언어상의 관념' 이지 영어의 관념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기에 나의 무지를 한탄하며 70평생 살아오고 있다

1960년경 한국 의사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다. 나처럼 '언어상 무넝(亂소)의 차이' 가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말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온 분께는 존경의 말씀과 동시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국인 마취과 레지던트가 마취에서 깨나는 미국 환자의 의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뺨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Open your eye" 라고 하면 환자는 한 눈을 지긋이 떠 보인다.

그 레지던트는 "왜 한 눈만 뜰까?" 생각하며 다시 "Open you eye" 라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하면 환자는 또 한 눈만 뜨라고 하니 지난 번에 뜨지 않았던 눈을 귀찮은 듯 지긋이 떠 보인다.

이 예에서 뜻하는 것은 단수와 복수의 관념이다.

한국사람은 "눈이 둘이지 뭐 냐?" 라는 관념 때문에 "눈을 떠 보세요" 라고 하지, "눈들을 떠보세요" 라고 하지 않는 반면 영어로는 두 눈을 의미하면 꼭 "Please open your eyes" 라 하는 것이 관념이다.

한국말로는 '00 여자학교' 라 하지 '00 여자중 학교' 라 하지 않으나 영어론 '00 Girl's School' 이 라 하 지 '00 Girl' s School' 이라 하지 않는 것이 두 다른 언어상에 나타나는 관념의 차이로 한 학생으로 시작해서가 아니란 것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알만한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한 여자대학은 "00 Womans University" 라 쓰면서 처음에 한 학생으로 시작해서 단수로 썼다는 설명을 하는데 학교란 단수가 아닌 복수의 기관이란 것은 상식도 될 만한 꺼리가 아닌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그리고 이 학교를 미국 선교사가 시작했을 때 그 한 학생은 나의 어머 한 소녀였으로도 "Woman' 아니라 'Girl' 이었을 것이니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또는 고유명사란 이유를 대기도 한다. 그러나 '00' 가 고유명사일 뿐 'Womans University' 는 단순한 보통명사다. 아무리 고유명사라도 문법에 어긋나는 것은 언뜻다고 생각한다

나처럼 그 언어의 관념의 차이를 몰랐을 때 만들어진 것이란 전설의 이유를 대면 누가 무어라 하겠냐만 그것조차 인정하기를 기부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유를 대는 것은 무지(無知) 내지 무지(無智)의 오명을 식자(識者)들에게 이미 남기고 있으며 오래 끌면 끌수록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엽분과 광물질이 많이 소모된 것을 모르고 계속 뛰어 쥐가 난 모양이다.

그렇게 한 것이 임에서 당기는 것을 보며 좀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 잠기에 비도 계속 내려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광물질 물을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었다.

16km 남은 지점에서 시계를 보니 11시간 제한시간에 1시간 정도 남았다. 속도를 좀 내 볼까, 하고 무거운 다리에 힘을 줬더니 다시 쥐가 나려 한다.

아픔다운 가슴 경치가 놓은 지녀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희미해져 가는데, 앞 뒤엔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밝이 무겁게 느껴지며 한 발씩 옮기는 자체에 노력을 해야 했다.

그 때 나에게 수프를 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속도를 맞추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놓촌 전원에 집안 얘기, 애들 얘기도 하다 보니 놓랍게도 힘겨운 것을 잊게 된다.

마지막 2 km가 남았을 때는 주위가 완전히 캄캄해지고 마주오는 차에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 때 완주선에서 기다리던 우리 클럽들이 달려 와서는 내 앞 뒤로 자전거 불을 켜고, 자동차 한 대는 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내 속도에 맞추어 완주선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다.

완주선에는 우리 클럽 사람들이 손뼉을 쳐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얼싸안고 담요를 덮어 주며, 내가 해낸 것을 마음 속에서 모두 축하해 주었다. 이것이 내가 상상했던 순간이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11시간 45분 뛰는 동안 한 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내가 젊은이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며 Solo를 뛸 수 있다는데 대한 만족감,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이었다.

구간의 경치는 주최측 말로는 "이 부근에서 가장 아름답다" 고 하는데, 뛰면서 주위 경관을 보면 그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도로변에 쌓여있는 단풍잎을 밟로 헤치면서 뛰어 보면 철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 친국이 있다면 거기는 이런 사람들만이 살거라는 상상을 해 보았다.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격려해 주는.

뛰는 도중 나하고 연배가 비슷한 남자와 장시 얘기를 나눴다. 그 친구는 "이번이 네 번째 울트라" 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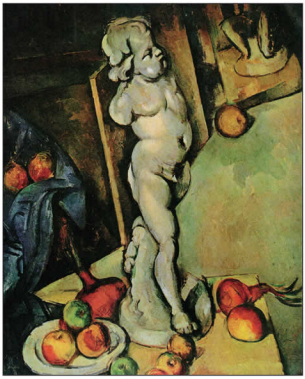
나는 "이번이 처음" 이라 했더니 그 친구 왈 "This will change your life forever." 라고 단언하듯이 말한다.

그 친구 말대로 지금의 내 행복함이 앞으로 오래 계속돼주기를 바랄 뿐이다.

1□□ 15~21□Layout_Aug_Temp 2011-01-12 □□ 10:23 Page 1

세계명화 감상<11> 폴 세잔(1839~1906)과 그의 명작들

The Great Bathers 1898-1905



석고상이 있는 정물화 1895

'20세기 미술의 아버지'로 불린 예술가

후기 인상파 중추적 화가, 미술사의 전환 계기

임이섭(미대 54)

폴 세잔은 프랑스 후기 인상파의 중추적 화가로서 19세기 말에 20세기 현대미술의 기초작업을 펼치고 미술역사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미술가다.

피카소의 입체주의와 마티스의 야수파 미술운동은 세잔의 미술 이론에 그 근거를 두었다고 할 수 있고, 마티스 자신도 세잔을 20세기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수줍은 성격의 세잔은 19세기 말 프랑스 인상파의 쟁쟁한 화가들인 피자로·르노아·데가·마네·모네 등과 교류를 나누면서도 당시 주류화단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혹평을 당한 뒤 20년 동안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혼자서 미술의 진미를 추구하였다.

그는 모든 사물이 원통(Cylinder)과 구형(Sphere)과 원추(Cone)로 돼 있다고 보았고 "미술가는 그러한 개념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말년에 명성을 얻었으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망하고, 평생 의 친구이며 그의 예술의 정신적 지주였던 시인 에밀 졸라도 사망해 고독하게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그는 20세기 현대미술의 등불이 된 것이다.

The Great Bathers

세잔은 자연 산천과 인물 군상이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균형을 이루는 많은 작품을 그렸는데 특히 수채화로 부드러운 색갈과 선으로 습작하였다.

'The Great Bathers'는 7피트 높이와 8피트 넓이의 대작으로 7년이 걸려 자연과 인물들을 그렸는데, 1906년에 그가 사망할 때도 '미완성'이라고 했다지만 그의 걸작 중에서 대작품이다.

피라밋형으로 거대한 나무들을 구성하고, 그 구도에 맞추어 13명의 나체 여인들이 각자 다른 율동으로 화합하여 향연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물들의 화합이 잘 조화된 가운데 그 사이의 큰 공간을 이루어 시원한 구도와 새로운 필치를 보여주는 세잔의 대표작이다.

석고상이 있는 정물화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과 사과 등의 정물화는 세잔의 특허품처럼 알려졌는데, 그는 거의 200개의 명작 정물화를 그리면서 형체와 색채의 구성을 자유자재로 추구하였다.

인물화와 풍경화와는 달리 정물화는 작가가 주인이 되어 주제에 따라 배열하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바 '석고상이 있는 정물화'도 그리스 신화의 석고상이 중심이 되어 사과와 배·오니온 등의 정물을 둥글게 배치하여 대조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다채로운 색채의 교향곡을 펼치고 있다.

세인 빅토아 산

세잔은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빅토아 산을 주제로 여러 방향에서, 여러 방법으로 거의 70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작품도 그 중의 하나로 그 구성과 색채의 융합이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세잔은 자연 속에서 그가 특출한 모티프를 발견하였을 때 그의 이즐을 세우고 자기의 개성과 정열을 쏟아부어 그의 세계를 창조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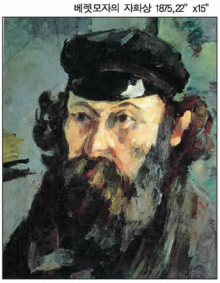
또한 이 작품은 색과 붓질을 통한 추상표현주의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베렛모자의 자화상

다소 음산한 색깔의 이 자화상은 그의 강한 붓질과 명암이 뚜렷한 인상파류의 결작이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의 계속되는 화절감 속에서 오는 외로움과 쓱쓱한 감정을 엿볼 수 있고 청록색 계통의 풍부한 색의 배합에서 그의 개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베렛모자의 자화상 1875,22" x15"



세인 빅토아 산 1905, 26" X 32"

1□□ 15~21□Layout_Aug_Temp 2011-01-12 □□ 10:23 Page 2

지역 소식 남가주

남가주 동창회

각 단과대학 별로 2010년 송년회 개최

남가주 동창회가 상대·법대·음대 등 각 단과대학별, 또 관악연대가 각각 송년회를 비롯한 행사 등으로 별도의 모임을 가지고 2010년 한 해를 마무리했다.

▶법대 동창회(회장 이재권)= 3개 단과대 중 가장 먼저인 지난 해 12월 7일 옥스보드 팔레스 호텔에서 2010년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동문 50여 명이 참석해 2010년 한 해를 돌아보고 친목을 다졌다. 사진(오른쪽 위)은 이 날 참석자들이 2011년의 힘찬 새해 활동을 다짐하면서 촬영한 장면이다.

▶상대 동창회(회장 김능집)= 2010년 정기총회 및 송년 모임을 지난 해 12월 10일 로텍스 호텔에서 열었다.

이 날 4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퀴즈, 노래, 춤, 경품 추첨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상대 동창회에서는 5년간 이사장직을 맡아온 심상은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사진(오른쪽)은 상대 동문들이 한 해를 감사하며 건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관악연대 '철벽지회' = 관악연대 최대의 사조직으로 급성장한 산악 자전거 동호인 모임인 '철벽지' 회는 지난 해 12월 11일 Carbon Canyon Regional Park 에서 마지막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모두 17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그동안 닦은 역량을 발휘했다. <맨 뒷 사진 = 이권병 촬영>

<www.acropolistimes.com>

▶음대 동창회(회장 홍선례)= 지난 해 12월 17일 JJ Grand 호텔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아래 사진)

60여 명이 함께 한 이 날 행사에서 홍선례 회장은 3년 동안 후원해 주신 노명호(서울대 총동창회 전 회장)·이해영(공대)·홍광식(공대회장)·이상무(산악회)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12월 3일 지퍼 홀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에서 모은 기금을 UCLA 한국음악 앙상블에 6000달러, 라보제 남성중창단(김지환·김성욱·김성은·박기홍 동문 등)에 장학금 4천 달러를 전달했다.

홍 회장은 "미주 음대 동창회 음악회 역사상 이처럼 대성황을 이루어 1만 달러의 성금을 기증한 음악회는 없었다. 매년 수익금을 이와 같이 뜻깊게 활용하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3년 동안의 음대 동창회장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정말 대단한 보람을 느꼈으며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음대 동창회 홍선례 회장이 김동석(UCLA 한국음악 앙상블)대표에게 6천 달러의 기금을 전달하고 3년 동안 정기 연주회 녹화로 수고해준 이해영(공대) 동문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1□□ 15~21□Layout_Aug_Temp 2011-01-12 □□ 10:23 Page 3

지역 소식 뉴욕 · 남가주

제32대 회장단이 자리를 함께 했다(맨 윗 사진).사진 왼쪽은 동문들이 음악에 맞춰 Train Dance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 날 장학금을 받은 동문 자녀들, 아래 사진은 관악연대 젊은 동문들의 모습이다.

뉴욕 동창회

송년회,장학빌딩 1만3500달러 송금

뉴욕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11일 뉴저지의 The Palisadium 연회장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제1부는 음대동문의 String Quartet 연주와 함께 Reception & Cocktail 시간이 있었으며 제2부는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Harvard, MIT, NYU, Rutgers대학등에 재학중인 5명의 후배들에게 2천500 달러씩 총 1만2천500 달러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어 제3부에서는 Dinner, Music, Dance & Entertainment로 동창회에서 준비 또는 후원 협찬된 많은 경품 추첨과 Line Dancing, 기차춤 등으로 손잡고 합창을 하며 헤어지기 아쉬운 밤을 보냈다.

이번 2010년 뉴욕 동창회 송년회 파티는 근래 보기드문 대성황리에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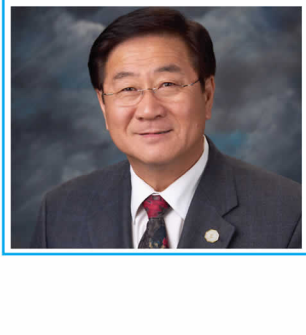
특히 32대 회장단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젊은 동문 참여, 즉 가칭 관악연대 동문들이 대거 참가하여 앞으로 뉴욕 동창회의 밝은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됐다.

한편, 모교 장학빌딩 건축기금 모금운동을 연말파티에서 마감해 본 결과 총 131명의 동문이 참여해 모은 1만3천500달러를 연말 모교 총동창회로 송금했다.

<윤병하 사무총장>

3월 재선도전 세리토스 시장 조재길 동문

"동문들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세리토스 시 최초의 한인 시장으로 전 미주 동포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는 조재길 동문(사진 · 사대 61년 입)이 오는 3월 8일 시 의원 재선에 도전한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해온 조 동문은 우리 한인이 이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미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2001년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그리나 지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나 낙선의 아픔을 딛고 2007년 한인 최초로 세리토스 시 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2010년 3월 세리토스 첫 한인 시장에 취임했다.

지난 2004년 한인 정치력신장위원회를 설립해 유권자 등록 및 후계자 투표신청,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훈련과 한인 후보 선거지원 등에 치중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 동문의 시 의원 당선과 그 동안 활동의 성과로 세리토스 지역에서 대학 평의원 · 교육위원이 잇따라 당선되고,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는 인근 라팜마 시와 부에나파 시에서 시 의원과 교육위원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 해 4월에는 한인 정치력 신장위원회가 연방정부와 가주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마쳐 한인 정치력 신장운동을 커뮤니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세리토스 시 의원 선거와 관련해 미주 중앙일보는 '조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2012년 가주 하원 입성을 노려볼 만하다'고 조 시장의 정치적 장래를 분석한 특집기사를 지난 해 12월3일자에 게재하기도 했다.

가주 하원 56지구는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아시아계에게 유리한 가주에서 몇 안되는 지역구로 조 시장이 가장 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 유권자 수가 7천여명에 달해 향후 유권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한인 유권자 수를 최대 1만2천 명까지 늘릴 수 있어 조 시장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올 3월 8일 실시되는 세리토스 시 의원 선거는 시 의원 재선만이 아니라 주 하원의원 도전을 비롯한 조 동문의 정치적 장래를 가늠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동문들이 적극 성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Joseph Cho for Cerritos City Council 2011, P.O. Box 4115, Cerritos, CA 90703 (562) 547-4434, josephjcho@ymail.com

1□□ 15~21□Layout_Aug_Temp 2011-01-12 □□ 10:23 Page 4

지역 소식 뉴잉글랜드 · 북가주 · 워싱턴

뉴잉글랜드 동창회

1월22일 정기총회 실시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신묘년 새해를 맞아 1월22일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윤희경 회장은 "이번 정기총회는 동창회 현황을 보고하고, 동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최고 의결기관의 행사일 뿐 아니라 동문들이 서로 정담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친교의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분의 동문이라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7대 집행부는 머리를 모았다는 것.

회의 장소는 동문이신 김주석 주보스턴 총영사께서 흔쾌히 제공해 주셨다. 예측을 불허하는 이 지역의 겨울철 밤길 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총회를 오후시간으로 정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동창회의 안정된 운영과 조직강화를 위한 회장 선출방법과 임기, 이사장과 이사회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회의 심의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동문들의 건설적 의견과 진지한 토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음악을 곁들인 지휘자 연합과 악곡해석을 주제로 한 김진 지휘자의 초청 강연이 따른다. 음악애호가 들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한 층 더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교양 프로라고 한다. 성의를 다한 만찬과 미스테리 선물도 준비,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정기총회를 준비중인 윤 회장의 동문들에 대한 당부의 말이다.

"지난 해 7월, 업무를 인계받은 제7대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까지 여러 사업을 다행스럽게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동문님들의 지원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저희 임원들도 이에 보답하고자 한 몫치가 되어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편, 동창회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 나아가 성장을 기하기 위하여 검토 중인 몇 가지 방안을 이 자리를 빌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토의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동창회 사업, 예산, 인선을 다룰 이사회 제도의 확립(현재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을 바꿔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과 참여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 방안)

2.범동창회내에서 리더십과 덕망이 있는 회장단을 선임하기 위해 회장/부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인선위원회 구성을 보완.

3.현재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을 승계함으로써 일어나는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회장/부회장 동일 티켓방식.

4.회장의 임기를 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현재 회장은 부회장2년/ 회장2년, 총 4년이 과다할 수 있음). 만약 위 3항의 경우가 되면 임기를 2년으로 함.

앞으로, 회칙위원회가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 1월 22일로 예정된 신년정기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토의할 계획입니다. 동문님들께서 훌륭한 조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잉글랜드지역에서 가장 활기있고, 모범적인 우리 서울대 동창회가 동문간의 친목과 사회 기여의 견본을 이어가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이날 2011년도 장학생에 대한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북가주 동창회

2010년 정례총회및 송년회 가져

북가주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11일 플레즌튼에 위치한 캐슬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정례총회를 겸한 연말 송년모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바쁜 일정 속에서도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교가제창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원로 선배 동문들과 젊은 세대인 후배 동문들이 화합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이 날 행사에서는 현 홍성계 회장(지리 69)과 신임 이장우 회장(문리대 72)의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취임식 연설에서 현 홍성제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동창회 활성화 방안의 결과 발표와 신임 회장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로 이임사를 대신했다.

이에 신임회장인 이장우 동문은 "단순한 총동창회 동문 결속의 차원을 넘어 각 단과대학의 자체 동창회 결성을 목표로 삼고 여러 단과대 동문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알고 지내자'를 총동창회의 슬로건으로 걸고 새로운 동문 발굴과 동문간 유대와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취임사에서 밝혔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황만익 이사장(사대 59)의 대금 연주를 시작으로 하모니카 연주, 불룸댄스 시범, 그림 감상, 노래자랑 및 동문들의 숨은 장기자랑의 시간을 가졌다.

황만익 이사장과 홍성제 전임회장은 이에 앞서 전임 이사장 김병호 동문(57)과 동문 골프대회장으로서 동문회 기금만장에 기여하신 윤두섭 동문(58)께 감사패를 전달하셨다.

행사의 마지막 시간에는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가 있었으며 동문 모두의 화합을 다지는 인사를 끝으로 송년모임을 마쳤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동문으로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이정관 총영사 및 부총영사, 교육원장도 참석하여 송년모임에 대한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자리를 빛내 주었다.

<정국휘 부총무(미대88)>

워싱턴 DC. 동창회

송년파티 열고 2명에게 장학금

워싱턴 동창회(회장 공순옥 · 사진 오른쪽)가 지난 해 12월 18일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저에서 송년 파티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존스 홉킨스대 · 메릴랜드대 등에서 유학 중인 동문들이 참석하면서 세대를 넘나드는 선후배간의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공순옥 제31대 회장은 "2011년 사업 목표로 세계에서 존경 받고 있는 겸손한 동문회를 만들고 효율적인 정보의 공유 및 모교와의 다리 역할이 되며 나아가 젊은 후배들에게 역할모델이 되자"고 말했다.

제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 날 동창회 연말 파티에서는 임원진 선출도 있었는데 한인섭 · 정요셉 동문이 새로이 감사로 선출됐다.

장학금 전달식도 가져 메릴랜드대 컴퓨터과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성우 동문과 메릴랜드대 간호학 박사 과정에 있는 한기혜(사진 왼쪽) 동문에게 동문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오인환)에서 각각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2부에서는 후배 동문들의 피아노 · 성악 · 하모니카 등의 연주 순서가 마련됐다.

1□□ 15~21□□Layout_Aug_Temp 2011-01-12 □□ 10:23 Page 5

의료 기행 북한 라선병원 방문기

수술 · 의료기구 제공 등 봉사

홍건(의대 64년 입)

작년에 이어 지난 가을 두번째로 북한 라진을 다녀왔다.

미국내 기독인들이 주축으로 형성된 만나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라진 선봉구역에 그동안 빛 공장과 전료소를 차려 운영해 왔는데, 정성어린 헌금으로 2008년 6월 10일 50병상의 입원실을 갖춘 라선 신종인민병원의 새 건물을 개원했다. 또한 Phillips 사 기술 제휴로 중국 Neusoft 의료기 회사에서 제조한 Spiral CT Scan 세 기계를 설치했다.

현재 60여명의 북한의사들이 상주 근무중으로 미국 각 지역에서 자원봉사 의료진이 연간 5-6 차례 방문해 돕고 있다.

나는 이번에 서울에서 의대 졸업 40주년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기에 날짜를 맞추어 집사람도 같이 가게 됐고, 또한 서부 위성턴주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문 소화기 내과 전문의 Dr.유와 같이 가게 돼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다.

작년처럼 금요일까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밤 오헤어 공항에서 가지고 갈 짐들을 모두 부치고, 기다리는 동안 작년 처음 갔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비록 한번 간 길이지만 그후에도 우리 친안함이 북한 어뢰로 격침되고 46명의 해군장병이 전사한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달리기에 여간 조심스러운 길이 아니었다.

여정대로 인천공항을 거쳐 연길에 도착, 현지 직원의 배려로 휴대 의약품 등이 큰 가방들이 하나도 분제없이 통과됐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온 대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화폐받을 연길에서 제일 좋다는 백산호텔에서 머물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로 우리들의 휴대품 외에도 라진에서 필요한 약품과 식료품과 식수 등을 가득 싣고 출발했다.

가는 길에 도문을 지나면서 두만강을 끼고 달리는 버스 창을 통해 강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북한땅이 보이는 것을 다시 보면서 만가보다. 중국 쪽의 길은 최근 완성된 고속도로와 마무리 진행중인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포장이 잘된 길을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운전해서 2시간 반만에 중국 훈춘에서 연결된 다리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다.

예측한 대로 북한측 원경 다리의 입국수속은 많은 중국 화물 운전사들과 여러 사람들이 수속을 위해 기다리는 바람에 2시간 이상 걸렸고 모든 짐들을 일일이 검사후 입국증서에 도장받고 나서, 북한 땅에 다시 도착한 것이다.

우리들이 체류하는 동안 안내 겸 지도원 두 사람, 안 선생과 박 선생이 우리를 맞이해 버스에 동승, 포장이 안된 높은 산골길을 꼬불꼬불 운전해 32마일 정도의 길을 2시간 정도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우리가 지내게 될 라진 호텔은 라진 시의 이름다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8층 건물로 엘리베이타가 있는 훌륭한 건물이었다.

이번에도 나의 의료선교 주 목적은 라선 인민병원에서 CAT Scan(단층촬영기구)로 환자의 사진 Dr.남 선생과 같이 하루종일 환자들의 CT 사진을 찍고 진단하는 것이었다. 모두 40 환자를 진찰했는데 지난 번 팀이 다녀간 후 그동안 검사했던 환자들의 케이스들을 같이 review 하면서, 앞으로 Dr.남이 혼자서 판독하는데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오후에는 사전에 온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한 의사들과 상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에 미국에서 모두 12명이 같이 방문했는데 그중에는 안과 의사도 있었다. 또 한 분은 한인 2세 산부인과 의사 Dr.로아들 Dr. Rick과 백인 Dr. John과 그 부인이었고, 또 인도계 미국인 의사 Dr. Ashok 가 동행해서 이채로웠다.

특별히 이번 안과 의사들이 도착하기 전 중국에서 현미경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계를 4만달러를 주고 사서 배달이 돼 기다리고 있었고, 기사들이 회사에서 직접 나와 모든 기구가 작동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기에 도착하는 즉시 기계를 점검하고 바로 환자들을 진료, 수술할 수 있었다.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백내장 환자 20명 등을 수술해 처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시력을 되찾아 감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병원의 전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과적 응급환자 치료'를 강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같이 간 유철회 소화기 전문의는 북한 의사와 함께 내시경을 같이 검사하고 상담했으며, 강의를 통해 '위암에 대한 최근동향' 을 들려주는 등 최신 정보를 주었다.

"자신은 의료 계통이 아니니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고 같이 가기를 주저했던 김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위해 진찰받는 환자들을 위해 통역 역할을 담당했고, 또 수술장에 들어가 인도 의사가 마취하기 위해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통역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또한 행 공장에서 북한 여성직원들과 함께 빵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됐고, 또 공짜 만드는 데서 책을 제본하는 일

뒷 사진은 홍건 동문이 부인과 함께 신종 인민병원 정면에서 촬영한 모습. 오른쪽 사진은 북한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CT사진을 Review 하는 장면이다.

을 직접 도와주면서 그 분들을 격려해주었다.

하루는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라선 유치원' 을 방문해 시카고에서 병원 분들과 친구들이 모아 준 학용품과 장난감 등선물을 가져 주었고, 어린이들이 한기를 연주하며 합창 등을 하는 제주를 관람했다.

곧 이어 새로 건축 중인 유치원 건물을 들러보았다. 뉴욕에서 건 간호사 테브라와 함께 공사 현장을 보고, 지붕공사후 이어질 내장공사에 필요한 내부장치, 그에 필요한 예산측정 , 그리고 누옥지부에서 한글 액수로 환상하기 위해 자세히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을 보았다. 내년이면 완공될 훌륭한 건물에 많은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기에 기대가 되며, 내년 이후 가는 분들은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들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아침은 호텔식당에서 다른 중국 손님들과 같이 들고, 점심과 저녁은 별원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정성으로 매 끼니 음식을 준비해주어 식사하는데 아무 불편한 점이 없었다 . 오히려 하루는 그곳의 명품 '꽃게' 그리고 다음 날은 ' 큰 게' 를 베풀어 주어 풍성한 식탁을 즐기게 됐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호텔 밖에 나가 조깅하는 의사들도 있었다. 나는 그럼도 그리고,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빛자루로 길바닥을 쓸면서 하루를 시작해 길에 종이 한 장 떨어진 것이 없고 매우 깨끗한 풍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돌아오기 전 날 만나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제3 요양소' 라는 결핵환자 수용 치료시설을 방문했다. 작은 개울이 흐르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여의사로부터 상황보고와 함께 장시 돌아볼 기회가 있었다.

오후에는 비파섬이라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방문해 바닷가에서 상상한 새우등 여러 해물 거리를 배불리 먹고 사진도 찍으며 휴식을 취했다. 또 장마당을 방문해 미국에서 같이간 사람들에게 2만원씩 인민폐(미화 약 15달러 상당)를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장마당에서 경교하게 손으로 만든 물품을 직접 구입하는 기회를 가졌고 다른 분들이 산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그런데 병원으로 돌아올 때 Dr.아속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있기에 "어디서 생겼느냐" 고 하니 "북한 돈을 주고 샀다" 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에 가지고 오지 못함 줄 알면서 왜 샀는가" 물어보니, "달이나 기타 다른 짐승들과 같은 자리에서 팔기에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길러서 잡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체식주의자인 나로서 그냥 지나 칠 수가 없어 땅서리다가 샀다" 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 안내인에게 물어보니 6살 짜리 딸이 있다기에 사서 너의 딸에게 선물로 주면 잡아 먹지 않고 잘 기를 수 있겠느냐" 고 다짐하고 샀다고 했다.

병원에 오자 마자 그는 세면대에서 깨끗이 씻기고 자기가 입고 있던 속옷으로 싸서 말려 종이주고, 병원 직원 아주머니 한테 "며칠 동안 길러주면 안내원이 가지러 온다" 고 하고, 강아지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아속' 이라 하고, "잘 기르면 내과 의사인 자기 부인하고 나 내년에 잘 자라고 있는가, 보러 다시 오겠다" 고 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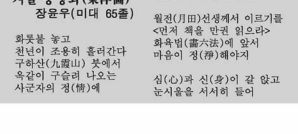
북한 체류도 끝이 나 의사, 간호사들과 모든 정든 분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헤어지동 아쉬워 하면서 다시 버스로 왔던 길을 돌아와 중국과 만나는 원정에서 출국 수속후 지도원들과 헤어져 중국 훈춘을 거쳐 먹힐 전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를 이용해 연변으로 돌아왔다.

백산 호텔에 다시 묵으면서 비가 내리는 주일 날 아침 연변조선족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에 가서 동창회에 참석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눈에 선한 라선 병원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와 환자들,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미국에 돌아오자 마자 북한에서 연평도에 포격으로 해병 두 병과 민간인 두 명이 사망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 걱정하고, 내년에도 다시 6개월이 방문하게 될 텐데 이러한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혹시 같이 방문을 희망하는 동문이나 만나 선교에 후원하고자 하는 분은 kuhnhong@aol.com 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동문 시 감상

겨울 동양화(東洋畵)

장윤우(미대 65졸)

화폭불 놓고
천년이 조용히 흘러간다
구하산(九霞山) 봇에서
속깊이 구슬리 나오는
사군자의 정(情)에

겨울밤이 화안히 핀다

월경(月田)선생께서 이르기를
<먼저 책을 반권 읽으라>
화육법(畵六法)에 앞서
마음이 정(淨)해야지

심(心)과 신(身)이 같 았고
눈시울을 시서히 들어

유연히 벽(壁)을 대하니
다 헝퍼하다
집시를 모으다 보니
별난 감이 다 든다
가부를 정하게 쫓어 큰 집시,
조그만 집시에 나누어 놓고
입리(淋漓)히 번져가는 소리
귀에 쏴악 듣는다

밖에 눈이 그쳤는지
봉당가 짓는 소리 멀고
보름을 먹은 달은
고연스레 내 외로움을
더하게 하늘

에라, 오늘은 붓도 먹도
집어치고
따든한 정중이나 한 잔 할까
안주로는
엊그제 끝낸 수병을 보지

언듯, 멀리 인경소리
들리는 듯 싶어
혼자 실소(失笑)했다

1쪽 15×21 Layout_Aug_Temp 2011.01.12 ㅁ 10:23 Page 6

문화 · 예술

데뷔 25주년 맞는 조수미 동문

"다시 태어나면 노래한 것 같아요"

이 글은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미협을 위해 조수미 동문이 지난해 12월 홍콩 컬처럴 센터 연주홀 분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노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내가 좀 놀랍네요.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평범하게 살겠네요."

소프라노 조수미(48).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의 대표적 프리마 돈나.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질다'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그의 노래 인생이 올해 25주년을 맞는다. 연간 두 달도 채 안되는 날 밖에 로마의 집에 머물러 못할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쪽쪽 쉬림 노래하고 무대를 누비며 쌓아 올린 성취감 뒤로 이제 시시하게 외로움의 그늘이 느껴진다는 한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사람이 나이 든다는 게 결국 부모님이 늙어가고 헤어질 날이 가까워 온다는 의미인가 싶어 슬퍼져요. 어머니가 쉬선 전 파리 공연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 접고 들어가려 했는데 어머니가 '관객과 약속은 하는이 무리겨도 지키라야 한다' 며 못 오게 하셨어요. 어머니 말인 데 저는 무대에서 노래했어요. 그리시인 어머니가 자궁 치매로 기억을 못 하시고 하루에 30차례씩 전화하세요. 걱정 돼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걱기 걸정돈' 고 못 오게 하세요. 노래만 하자가 감기들어 목 잠기면 안된다는 거예요. 치매 어머니가 그런 말만할 정신이 어떻게 있는지….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 '올해가 백호띠잖니, 내가 백호더래' 이런 생각뿐이요. 젊은 게 많은 걱기, 연은 게 많은 건가 판단이 안 되네요."

-가족과는 자주 함께하시나요.

"올해가 국제무대 데뷔 25년째인데 한 번도 부모님 생신 챙겨 보낸 적이 없어요. 동생들 결혼식도 못 가보고요. 가족이 다 모여본 게 2000년 1월 1일 뉴욕 멧트로폴리탄 공연 때였어요. 이게 내 운명, 인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해요. 인생이란 게 사람하는 사람들끼 정 나누고, 맛이 손잡고 산책도 하는 건데…. 얻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잃어 버린 거구나 싶어 슬퍼집니다."

-마흔이면 결혼이 불편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제 형편이 남자 사귀기가 어려웠요. 주변에선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데 여자라면 바라는 이상형이 왜 없겠어요. 따지는 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외 생활 많이 해서 적응력도 좋고 누굴 만나도 편하게 대해요. 현대 감각에 맞춰 가며 노력하고 분들과 친해도 많이 하지만 남자를 만나기는 힘들어요. 콘서트 때 인사, 저녁 초대, 그렇게 만난 분들 중 '매우자로 괜찮겠다' 싶은 분도 몇 없었죠어요. 오늘은 홍콩, 다시 내일 그 다음, 시드니로 계속 움직이니까 따라다니지 못하죠. 같이 밥도 먹고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공연 끝나고 오면 '프리마 돈나 마누라 왔다' 면서 소년이미는 해줄 그런 분 계실지 잘은데…. 몇해 전 한 남자가 인터넷 공연 다니면서 시사 만 맞이 서로 전화 어갔다고 하다 헤어졌어요."

-다른 분제는 없었을까요.

"사실 성격 차이도 있었죠. 어티스트는 자유를 빚고사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이라도 따로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거든요. 그래야 음악적 표현이 살아날 수 있지고 생각해요. 오페라에서 주종 배역, 어떨 때는 요염하게, 어떨 때는 청순하게, 천사처럼, 할일 있어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시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잘 이해 못했어요. 소유하려는 의지가 그때는 미거웠요."

-반쪽시사 짝은 생각도 못하셨어요.

"왜요. 지년 해는 결혼 일있었 남이 58일이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연습, 공연하면서 다 갔네요. 지금 급한 건 빠주자보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잠들 때도 생각하면서 자고. 그게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어나면 오늘 뭘하고 할 일보 생각하고 스케줄 짜게보고 그래요. 수녀님들은 종교에 결혼한 거 같아요. 저는 음악이 종교가 된 거지요. 음악이 일상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거미가 줄타을 하니시 한국에 가면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적십자사, 유네스코 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결혼 못하신다고 들리는데요.

"차기 전 거을을 바꿔. '오늘도 우주 도 없었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내 분제 같아요. 물론 안 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없는 거 잖아요. 문 두드리면 '똑똑'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스트라급(struggle)' 하면서 온 자린데 밖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죠. 인생이 삼각형 같아서 일에 서는 군중의 일부죠. 보는 게 비슷해요. 하죠. 갈수록 조망권이 생기면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열하게 발전해오면서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거 같아 안타까워요. 호주나 캐나다나 정글드처럼 자연에 묻혀 살고 나라나 체코나 크로아티아 같은 데 가서 공연하면 객석의 순수함이 전해져요. 서로 주고받는 감동이 달라요.

'사랑하는 아버지' 에 기럽박수

지난 해 12월 1일 '수미 조 홍콩 리런즈' 공연에서 조수미는 노랜미와 제지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무대에 등장하면서 트레스 가슴 리인을 밀밀하게 유유하고 객석에선 소음보가 터졌다. 프리마 돈나와 객석의 거리감은 사라졌다.

감기 초기 증세로 코를 훌쩍이는 동료 상대가 장상이 아있었지 한 두 차례 심주을 받하자 "그 부분만 다시 하겠다" 며 고단도 '꼴로라투라' 화려한 기교의 성악기법) 로 에포르시비스했다.

앙골 VIP석을 메운 서양 노신사들은 (7)리 손의 달빛한 모습과 장상의 기량에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조수미가 세번째 앙코르로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의 아리아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를 시작하자 객석에선 흥정거림이 있었다. 지난스로 어떤 사람은 이 곡을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미협을 위해 조수미 동문이 지난해 12월 홍콩 컬처럴 센터 연주홀 분장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다시 태어나면 노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는 내가 좀 놀랍네요. 그럴 수만 있다면 가장 평범하게 살겠네요."

소프라노 조수미(48). 수식어가 필요 없는 한국의 대표적 프리마 돈나. 1986년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질다' 역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그의 노래 인생이 올해 25주년을 맞는다. 연간 두 달도 채 안되는 날 밖에 로마의 집에 머물러 못할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쪽쪽 쉬림 노래하고 무대를 누비며 쌓아 올린 성취감 뒤로 이제 시시하게 외로움의 그늘이 느껴진다는 한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사람이 나이 든다는 게 결국 부모님이 늙어가고 헤어질 날이 가까워 온다는 의미인가 싶어 슬퍼져요. 어머니가 쉬선 전 파리 공연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 접고 들어가려 했는데 어머니가 '관객과 약속은 하는이 무리겨도 지키라야 한다' 며 못 오게 하셨어요. 어머니 말인 데 저는 무대에서 노래했어요. 그리시인 어머니가 자궁 치매로 기억을 못 하시고 하루에 30차례씩 전화하세요. 걱정 돼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걱기 걸정돈' 고 못 오게 하세요. 노래만 하자가 감기들어 목 잠기면 안된다는 거예요. 치매 어머니가 그런 말만할 정신이 어떻게 있는지…. 인터뷰 기다리는 동안 '올해가 백호띠잖니, 내가 백호더래' 이런 생각뿐이요. 젊은 게 많은 걱기, 연은 게 많은 건가 판단이 안 되네요."

-가족과는 자주 함께하시나요.

"올해가 국제무대 데뷔 25년째인데 한 번도 부모님 생신 챙겨 보낸 적이 없어요. 동생들 결혼식도 못 가보고요. 가족이 다 모여본 게 2000년 1월 1일 뉴욕 멧트로폴리탄 공연 때였어요. 이게 내 운명, 인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해요. 인생이란 게 사람하는 사람들끼 정 나누고, 맛이 손잡고 산책도 하는 건데…. 얻은 것도 많지만 그만큼 잃어 버린 거구나 싶어 슬퍼집니다."

-마흔이면 결혼이 불편한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제 형편이 남자 사귀기가 어려웠요. 주변에선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는데 여자라면 바라는 이상형이 왜 없겠어요. 따지는 거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외 생활 많이 해서 적응력도 좋고 누굴 만나도 편하게 대해요. 현대 감각에 맞춰 가며 노력하고 분들과 친해도 많이 하지만 남자를 만나기는 힘들어요. 콘서트 때 인사, 저녁 초대, 그렇게 만난 분들 중 '매우자로 괜찮겠다' 싶은 분도 몇 없었죠어요. 오늘은 홍콩, 다시 내일 그 다음, 시드니로 계속 움직이니까 따라다니지 못하죠. 같이 밥도 먹고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공연 끝나고 오면 '프리마 돈나 마누라 왔다' 면서 소년이미는 해줄 그런 분 계실지 잘은데…. 몇해 전 한 남자가 인터넷 공연 다니면서 시사 만 맞이 서로 전화 어갔다고 하다 헤어졌어요."

-다른 분제는 없었을까요.

"사실 성격 차이도 있었죠. 어티스트는 자유를 빚고사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이라도 따로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거든요. 그래야 음악적 표현이 살아날 수 있지고 생각해요. 오페라에서 주종 배역, 어떨 때는 요염하게, 어떨 때는 청순하게, 천사처럼, 할일 있어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시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잘 이해 못했어요. 소유하려는 의지가 그때는 미거웠요."

-반쪽시사 짝은 생각도 못하셨어요.

"왜요. 지년 해는 결혼 일있었 남이 58일이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연습, 공연하면서 다 갔네요. 지금 급한 건 빠주자보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잠들 때도 생각하면서 자고. 그게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어나면 오늘 뭘하고 할 일보 생각하고 스케줄 짜게보고 그래요. 수녀님들은 종교에 결혼한 거 같아요. 저는 음악이 종교가 된 거지요. 음악이 일상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거미가 줄타을 하니시 한국에 가면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적십자사, 유네스코 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결혼 못하신다고 들리는데요.

"차기 전 거을을 바꿔. '오늘도 우주 도 없었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내 분제 같아요. 물론 안 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없는 거 잖아요. 문 두드리면 '똑똑'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스트라급(struggle)' 하면서 온 자린데 밖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죠. 인생이 삼각형 같아서 일에 서는 군중의 일부죠. 보는 게 비슷해요. 하죠. 갈수록 조망권이 생기면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열하게 발전해오면서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거 같아 안타까워요. 호주나 캐나다나 정글드처럼 자연에 묻혀 살고 나라나 체코나 크로아티아 같은 데 가서 공연하면 객석의 순수함이 전해져요. 서로 주고받는 감동이 달라요.

카리안이 인정한 조수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조수미 카리안(Sumi jo karajan)' 을 검색해 보자. 2006년 로마에서의 동영상이 나온다. 젊은 조수미가 커다란 리본으로 머리를 잘근 묶고 나온다. 스웨덴 살아다 . 일생을 '스타' 로 살았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안은 76세, 죽음을 3년 앞두고 있었지만 기스를 쓰 없는 기세가 넘쳐 있다. 들은 이가 보지 못 했다. 조수미는 한국 건장한 체 바호를 부른다. 카라안이 묻는다. "수미, 내년 부활절에 뭐 하지? 서울에 가니?" 조수미가 답한다.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제 '밤의 여왕' 을 녹음해요." 지휘자는 즉석에서 이 노래를 청한다. "이렇게 이런 아 침에요? 잘 부르지 못할 거예요." 조수미가 거절해 보지만 피아니스트는 무시한 채 반주를 시작한다. 조수미 의 짧은 유창은 놀고 청랑하다. 지휘자 화려한 음이 이어지는 노래가 끝나고 카라안이 입을 뗀다. "믿을 수 없네(I can' t believe it)."

이 영상은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이탈리아로 유학간 '초짜' 조수미를 순식간에 음악계 판심의 중심에 데려 온 것이다. 3년 발매된 음반 '아슬피리', 즉 카라안 앨범이 불었던 '밤의 여왕' 아리아는 그 명성에 제기 된 의문을 일시에 잠재웠다. 이 음반은 세계에서 팔린 것만 2백만 장이 넘어 갔다. 그때 조수미는 스물 세 살이었다. 그 때 이후 조수미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쪽쪽 쉬림 노래하고 무대를 누비며 쌓아 올린 성취감 뒤로 이제 시시하게 외로움의 그늘이 느껴진다는 한다.

-다른 분제는 없었을까요.

"사실 성격 차이도 있었죠. 어티스트는 자유를 빚고사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이라도 따로 지켜야 할 사생활이 있거든요. 그래야 음악적 표현이 살아날 수 있지고 생각해요. 오페라에서 주종 배역, 어떨 때는 요염하게, 어떨 때는 청순하게, 천사처럼, 할일 있어 그렇게 사는 인생이죠. 시집하는 분이 있는데 그럴 잘 이해 못했어요. 소유하려는 의지가 그때는 미거웠요."

-반쪽시사 짝은 생각도 못하셨어요.

"왜요. 지년 해는 결혼 일있었 남이 58일이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연습, 공연하면서 다 갔네요. 지금 급한 건 빠주자보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에 가슴이 뛰고 잠들 때도 생각하면서 자고. 그게 안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어나면 오늘 뭘하고 할 일보 생각하고 스케줄 짜게보고 그래요. 수녀님들은 종교에 결혼한 거 같아요. 저는 음악이 종교가 된 거지요. 음악이 일상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게 된 건데요. 거미가 줄타을 하니시 한국에 가면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평창올림픽 유치위원회, 적십자사, 유네스코 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결혼 못하신다고 들리는데요.

"차기 전 거을을 바꿔. '오늘도 우주 도 없었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내 분제 같아요. 물론 안 열면 누구든 들어올 수 없는 거 잖아요. 문 두드리면 '똑똑' 하고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지금까지 스트라급(struggle)' 하면서 온 자린데 밖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나아가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죠. 인생이 삼각형 같아서 일에 서는 군중의 일부죠. 보는 게 비슷해요. 하죠. 갈수록 조망권이 생기면서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열하게 발전해오면서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린 거 같아 안타까워요. 호주나 캐나다나 정글드처럼 자연에 묻혀 살고 나라나 체코나 크로아티아 같은 데 가서 공연하면 객석의 순수함이 전해져요. 서로 주고받는 감동이 달라요.

서 새소 가꾸는 그런 게 더 편해요. 늘 같은 침대에서 일어나고 같은 컵으로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일상의 안정감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완전히 반대급한요. 타고난 성정의 반대편만 계발한데서 산 인생이죠. 스웨덴이 '선생님 외로우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딨겠어요. 외로움이 사실 심화시킨 건일 만하니까 이러고 사는 거 거이요요. 하나님이 주신 시 재능, 음악의 힘, 노래란 하면 많은 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그 힘 받아 사니까 힘들다든가 하는 거 못 느꼈던 거지요."

-데뷔 25주년이니 더 바쁘시겠네요.

"올여불하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네요. 케이블 HD채널 제 노래로 드라마 만든다요. 대구 세계육상대회 축하공연도 해야 하고 바로크 음악 투어, 일본 투어 소화해야 하니까 계속 돌아다니죠. 그래도 연말은 한국에서 보내 다행이에요."

-광부 관련 행사에 많이 초청되시네요. 10년 전 12월11일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 축하 공연이 있었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 노래를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동하신 뒤 저 안에서 제 노래를 들으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셔서 갔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 무대에 섰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영광이고 벅찬 기쁜으로 노래했던 기억이 새롭네요."

-싱글로 격으로 적 한국 가다중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객석의 편들이 계가 코리안이라는 사실 보다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노래하면서 코리안 숨(soul)이 한 번 더 튀기지고 좋잖아요. 외국 오케스트라가 한국 곡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공연할 때 세 가지 드레스를 선보였는데 맞드레 집 의상인가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드레스는 앙드레 김 선생님 옷으로 한 달 전 유언에서 노랜한 때도 김 선생님 옷을 입었어요. 지난 여름 들어가셨다는 소식 듣고 할하나 가슴이 아팠으서 돌려요. 한국 을 너무 사랑하고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못이 갔았고. 앞으로도 선생님 옷을 계속 입을 겁니다. 두 번째 의상이 서승현씨 옷이예요. 크리스탄 다윤에서 협찬해주셨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반짝이는 제동 가진 디자이너 많아요. 이왕이면 세계에 알리는 기회 한국인이 만든 옷 입어야지요."

-초롱에 신경을 많이 쓰시나요.

"그렇요. 무대에 그런면 노래를 포함해서 통작, 소통할 것 없이 뭉쳐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공연 때 은목걸이도 홍콩 보석회사에서 협찬해 준 건데 70인 달려와라래요. 후시 중 불어지면 어쩌나, 어쩌 조마조마 하던지. 조수미 이름을 건 무대니까 최고로 보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무대는 다 서보셔서 도전해보고 싶은 무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좋다는 무대는 다 서봤죠. 이제는 소수용 원한 클래식이 아니라 아외, 폴랑 같은 데서 대중과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가족 유아회 같은 거죠. 그렇다고 연주회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 중요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대 하나, 도시 하나, 나라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할리우드 불처럼 아외 공연장에서 입마이빠 손잡고 온 아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건정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풀어가야죠."

-스스로 노래같이라는 파장는 데 대중가수 중에 혹시 같이 무대에 서보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아, 이효리씨 하고 함께 서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으로나 아티스트로서 이효리씨 경영 파워 넘쳐요. 대중적이고 TV에서 보니까 평소엔 탈일하던데 어떻게 무대에선 그렇게 파워풀한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해요."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2010 2011년 1월

고국동문 동정

수상

▲김부겸 (제 37 회) 민주당 최고위원 11월 30일 사단법인 한미협회로부터 제8회 한미우호상 수상.

▲장동훈(화공56)은 KAIST 명예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송태원(행정71)은 고려대 전 교수·강원대 초빙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11월 19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4회 학술(공로) 표창(개발부문) 수상.

▲홍반표(성공53-57 가회회원)=11월 18일 제24회 심유이 남 기념세미나 일단 산업훈장 수훈.

▲홍종웅(국어교육54-58 한국제대 명예교수)=11월 22일 동숭학술센타서 14회 동숭학술상(공로부문) 수상.

▲宋相鎭(화학55-59 한림대 명예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宇二主(식물55-60 모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虞榮熊(상학55-59 동일테크 회장)=11월 19일 제14회 금탑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 수훈.

▲白鳳基(약학59-63 한신모방 대표)=11월 18일 제24회 심유이 남 기념식에서 신업포장 수상.

▲金浩泉(물리60-64 이화여대 명예교수)=11월 27일 大山(槐園)문화재단 서 제15회 大山문학상(평론)수상.

▲卓昌源(법학60-64 을경총학법률 편집사)=최근 보상금환급에 서기차 장관 스리운 보상인상 수상.

▲吳世榮(국문61-65 모교 명예교수)=11월 19일 제7회 '현진 서한' 수여 제3회 한국예술상(시부문) 수상.

▲鄭玉子 (사학 61-65 모교 국사학과 명예교수)=11월 30일 世宗 호암홀 선정 기념 제1회 民世賞(학술연구) 수상.

▲金炳石(의학62-68 모교 약리학교실 명예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金麗弦(기공64-72 한국우편집자회 사장)=친환경산업 육성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

▲文相鎭(화공64-68 모교 명예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학술부문) 수상.

▲송동근(공학64-69 모교 교수)=11월 19일 제9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상(공로부문) 수상.

▲송인걸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0년 7월1일~12월7일까지)

2010~11 동창회비납부동문

Alaska
윤제중(농대55)

Alabama
유성무(상대66)
장세웅(상대59)
전탁규(공학70)

Arizona
지영환(의대59)
최윤근(공학59)

California
강길용(공대46)
강동순(법대59)
강신환(사대73)
강신호(사대49)
강영호(의대59)
강일선(약대44)
강정진(문리60)
강정훈(미대56)
강중경(공대48)
강천호(사대58)
강홍재(사대53)
강희형(공학57)
고석원(문리50)
고영철(의대45)
고재원(공학57)
권기상(경영72)
권길상(음대45)
권영덕(공학54)
권영재(의대57)
권오형(사대61)
권웅진(치대65)
권태삼(수의73)
기옥진(문리52)
김경무(공학69)
김경수(사대58)
김경옥(음대62)
김계윤(의대57)
김광은(음악56)
김광하(자대46)
김광현(법대63)
김교복(농대63)
김기덕(사회대)
김기수(공대74)
김기태(의대52)
김남구(상대67)
김동성(행정59)
김동인(상대56)
김란형(공대53)
김병현(치대56)
김병삼(공대52)
김병환(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상덕(공대57)
김상철(법대54)
김석홍(법대59)
김선기(법대59)
김선명(공학75)
김상동(공학70)
김순길(법대54)
김순자(치대57)
김영기(의대53)
김영덕(법대58)
김영태(법대55)
김영해(미대61)
김영식(공대54)
김영자(사대61)
김영주(의대53)
김영태(법대61)
김영호(공대54)
김영자(간호61)
김용기(의대58)
김용수(사대74)
김원백(의대65)
김인수(공학59)
김정식(공대59)
김정훈(의대59)
김종기(의대53)
김종수(공대74)
김종식(의대61)
김종태(법대58)
김종호(공학67)
김주식(공학59)
김지수(공학59)
김지영(의대59)
김지원(의대65)
김진수(공학59)
김진호(의대64)
김창무(음대50)
김태곤(공대59)
김태용(의대57)
김태윤(법대53)
김한겸(의대65)
김현순(간호69)
김현철(의대57)
김현호(문리59)
김홍록(문리60)
김홍석(의대53)
김희창(공대64)
나두섭(의대66)
남광우(사대56)
노병호(공대61)
노문희(사대59)
노재민(문리9)
문인일(공대51)
문병하(법대51)
민경택(의대61)
민상하(공대60)
민영기(치대61)
민재원(의대49)
민재홍(공대48)
민재홍(의대61)
민상하(공대60)
민영기(치대61)
민재홍(의대49)
민재홍(공대48)
민재홍(의대61)
박경수(사대58)
박경희(문리46)
박경호(사대53)
박경희(문리46)
박병원(의대49)
박상욱(상대58)
박우성(상대77)
박순자(간호60)
박원준(공대53)
박은덕(치대68)
박미순(수의74)
박인수(농대64)
박정모(문리66)
박종만(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종식(사대58)
박종우(공대64)
박종일(의대59)
박찬호(자연56)
박춘서(약대60)
박태호(치대66)
박병철(사대72)
박희규(수의53)
방병진(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병옥(음대58)
백소진(문리55)
백승호(치대55)
백옥자(음대71)
부형무(치대70)
서정화(공대55)
서희원(의대59)
선대식(상대60)
신우식(치대62)
손학서(공대61)
송은섭(농대65)
송정자(의대67)
송준섭(농대65)
신동국(수의80)
신성규(사대57)
신병주(상대70)
신정재(미대61)
심상은(상대54)
신석순(간호68)
안병영(공학75)
안희경(음대56)
양광주(문리58)
양우문(공대65)
양은석(음대70)
양혜준(상대56)
염동해(농대74)
오명구(간호77)
오창숙(간호60)
오재인(치대33)
오좌수(약대57)
원미랑(미대65)
유석홍(상대61)
유진형(상대47)
윤경식(상대67)
윤경빈(법대55)
윤석철(상대60)
윤용길(공대55)
홍동기(의대58)
홍희상(치대65)
홍순석(공대50)
홍재민(공대61)
홍재민(공대61)
홍재민(공대61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New Jersey
장석권(법대61)
고순정(간호69)
곽선섭(공대61)
권문웅(의대61)
권오근(상대58)
김광래(간호55)
김광현(의대57)
김기표(상대58)
김기홍(공대60)
김미란(간호76)
김상수(상대64)
김양호(의대51)
김영길(문리62)
김영만(상대59)
김영무(공대75)
김완주(의대54)
김은섭(의대53)
김자억(의대69)
김정빈 (약대 54)
김한홍(의대56)
김훈일(공대60)
류재춘(미대71)
박건이(공대60)
박경룡(약대63)
박경원(미대66)
박성일(상대58)
박순영(법대56)
박익수(사대52)
박관우(상대77)
박태호(상대76)
반영철(약대54)
배병재(간호47)
서정수(약대63)
성옥수(의대67)
손광호(의대59)
송기인(의대60)
송영우(사대64)
송용섭(의대63)
신두식(의대52)
신정택(약대52)
안인섭(법대53)
양문식(상대54)
양상범(상대)
염종열(미대61)
오용호(의대66)
옥순재(의대63)
유광선(공대67)
윤양돈(법대59)
윤준식(법대58)
윤현남(공대64)
이경림(상대64)
이경재(공대63)
이능식(의대57)
이문휘(문리54)
이상근(의대60)
이유선(의대58)
이재덕(법대60)
이재원(법대60)
이전구(농대60)
이종식(상대57)
이종환(법대51)
정용국(공대60)
최준희(의대58)
탁명장(약대62)
한인섭(약대)
함재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Nevada
김병수(의대57)
최영식(법대59)
최창식(의대61)

New York
강상진(의대55)
장영선(공대50)
장광무(사대60)
곽승용(의대65)
정영구(상대61)
전영국(상대60)
김광회(간호59)
김동옥(법대55)
김동진(약대56)
김동현(공대61)
김보경(약대61)
김상기(법대56)
김상현(약대56)
김재중(공대54)
김재홍(의대57)
김정수(의대60)
김정일(의대63)
김정태(의대60)
김종수(의대63)
김지석(간호60)
김진식(간호60)
김창수(약대64)
김창화(미대65)
김태옥(공대55)
김태일(공대60)
김호원(의대46)
남상태(간호66)
노홍민(의대49)
만방수(의대60)
박경식(사대59)
박광수(의대54)
박성룡(약대57)
박원상(약대60)
박종수(의대60)
박재홍(공대62)
박고재(음대61)
박수인(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정일(의대67)
배상규(약대61)
백춘자(간호60)
서경애(음대57)
선종림(의대57)
성재경(의대57)
신희정(음대55)
신정자(간호62)
안태홍(상대65)
양기영(의대49)
양규자(미대69)
양세관(경영66)
염상진(상대77)
유광현(의대58)
유무영(공대66)
유연기(음대50)
유재섭(공대65)
윤병남(사대62)
윤정식(의대58)
윤풍균(사대54)
윤영섭(의대57)
윤인숙(간호63)
이국진(사대51)
이근수(상대64)
이기준(문리66)
이대영(문리64)
이상훈(법대60)

이승우(약대63)
이승철(약대66)
이형석(계대52)
이형석(농대59)
이호연(문리61)
이주경(상대69)
이준영(공대48)
이중춘(공대56)
이해창(약대62)
이현호(공대58)
이희경(의대55)
이희재(간호70)
임진식(음대52)
임규화(경영58)
임대옥(의대58)
임중섭(미대60)
장정식(법대59)
장기선(약대61)
전병삼(약대54)
전승일(공대64)
전재홍(공대54)
정동기(공대5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정백수(문리46)
조대영(공대61)
조종수(공대64)
조태환(공대56)
차국연(상대56)
천병우(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영혜(간호64)
한승헌(미대60)
한용진(미대55)
홍선경(의대58)
황문환(수의76)
황성현(공대56)

N.Carolina
홍 훈(문리75)

Ohio
고남규(의대61)
김용린(경영66)
김윤식(의대63)
김한교(문리47)
김현룡(공대64)
김홍식(의대63)
명인재(자연75)
손기용(의대55)

송용덕(의대57)
송용재(의대63)
신영하(의대63)
이범재(의대56)
이영호(의대56)
이용재(공대60)
최인갑(공대57)
홍준표(의대58)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의대70)
차용희(의대51)

Oregon
김상민(음대46)
김상순(상대67)
김영자(간호53)
이은석(문리53)
최근냥(법대53)
김금희(경영58)
임대옥(의대58)
임중섭(미대60)
장정식(법대59)
전병삼(약대54)
전승일(공대64)
정동기(공대5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정백수(문리46)
조대영(공대61)
조종수(공대64)
조태환(공대56)
차국연(상대56)
천병우(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영혜(간호64)
한승헌(미대60)
홍선경(의대58)
황문환(수의76)
황성현(공대56)

N.Carolina
홍 훈(문리75)

Ohio
고남규(의대61)
김용린(경영66)
김윤식(의대63)
김한교(문리47)
김현룡(공대64)
김홍식(의대63)
명인재(자연75)
손기용(의대55)

김재희(문리54)
김정희(간호69)
김종원(사대58)
김진수(문리53)
김진자(간호60)
김창수(약대64)
김창화(미대65)
김태옥(공대55)
김태일(공대60)
김호원(의대46)
남상태(간호66)
노홍민(의대49)
만방수(의대60)
박성식(사대59)
박광수(의대54)
박원상(약대57)
박현상(약대60)
박종수(의대60)
박고재(음대61)
박수인(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정일(의대67)
배상규(약대61)
백춘자(간호60)
선종림(의대57)
성재경(의대57)
신희정(음대55)
신정자(간호62)
안태홍(상대65)
양기영(의대49)
양규자(미대69)
양세관(경영66)
염상진(상대77)
유광현(의대58)
유무영(공대66)
유연기(음대50)
유재섭(공대65)
윤병남(사대62)
윤정식(의대58)
윤풍균(사대54)
윤영섭(의대57)
윤인숙(간호63)
이국진(사대51)
이근수(상대64)
이기준(문리66)
이대영(문리64)
이상훈(법대60)

이승우(약대63)
이승철(약대66)
이형석(계대52)
이형석(농대59)
이호연(문리61)
이주경(상대69)
이준영(공대48)
이중춘(공대56)
이해창(약대62)
이현호(공대58)
이희경(의대55)
이희재(간호70)
임진식(음대52)
임규화(경영58)
임대옥(의대58)
임중섭(미대60)
장정식(법대59)
장기선(약대61)
전병삼(약대54)
전승일(공대64)
전재홍(공대54)
정동기(공대5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정백수(문리46)
조대영(공대61)
조종수(공대64)
조태환(공대56)
차국연(상대56)
천병우(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영혜(간호64)
한승헌(미대60)
홍선경(의대58)
황문환(수의76)
황성현(공대56)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의대70)

Oregon
김상순(상대67)

Philadelphia
김영수(공대55)
손재옥(생활77)
송낭군(공대) 20
정상수(의대62)
현재원(공대60)

Texas
김동수(의대60)
김재선(의대60)
김정훈(공대63)
김태훈(공대57)
김한구(의대60)
김홍식(의대63)
이관구(의대60)
이상기(의대60)
이상훈(의대60)
이정희(의대60)
이종식(의대60)
이주경(의대60)
이준영(공대48)
이중춘(공대56)
이해창(약대62)
이현호(공대58)
이희경(의대55)
조시호(문리59)
조진래(문리57)
최관일(공대54)
최성호(문리58)
최용원(의대53)
탁순덕(사대57)
황희찬(사대76)

송용덕(의대57)
송용재(의대63)
신영하(의대63)
이범재(의대56)
이영호(의대56)
이용재(공대60)
최인갑(공대57)
홍준표(의대58)

Oklahoma
김경숙(생활70)
이상강(의대70)
차용희(의대51)

Oregon
김상민(음대46)
김상순(상대67)
김영자(간호53)
이은석(문리53)
최근냥(법대53)
김금희(경영58)
임대옥(의대58)
임중섭(미대60)
장정식(법대59)
전병삼(약대54)
전승일(공대64)
정동기(공대5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정백수(문리46)
조대영(공대61)
조종수(공대64)
조태환(공대56)
차국연(상대56)
천병우(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영혜(간호64)
한승헌(미대60)
홍선경(의대58)
황문환(수의76)
황성현(공대56)

N.Carolina
홍 훈(문리75)

Ohio
고남규(의대61)
김용린(경영66)
김윤식(의대63)
김한교(문리47)
김현룡(공대64)
김홍식(의대63)
명인재(자연75)
손기용(의대55)

Philadelphia
허창기(약대67)2000

Texas
조시호(문리59)3000

Oregon
김계정(문리82)1500

펜의원회비

Chicago지부
강수상(의대 47)
고병철(법대 53)
구경회(의대 59)
김사식(상대 59)
김정주(문리 60)
노영일(의대 62)
박 숙(의대 64)
변연희(간호 61)
박영규(농대 57)
송순영(문리 52)
이용학(약대 48)
이승우(의대 60)
이영우(문리 60)
정 호(문리 62)
조태현(문리 57)
한상호(의대 56)
홍사헌(의대 59)
남상용(공대 52)

Heartland지부
구병순(간호 60)
김영자(문리 62)
배규영(사대 68)

Houston지부
조시호(문리 59)

LA(남가주)지부
장호석(상대 81)

김은종(상대 59)
지인수(상대)

New England지부
박경민(의대 53)
윤희정(문리 62)
고일석(보대 66)
윤상래(수의 62)

New York지부
장광무(사대 60)
지창수(약대 64)
오인석(법대 58)
이진구(농대 60)
이준행(공대 48)
한경수(문리 57)

Philadelphia지부
고병은(문리 55)
서중민(공대 64)
손재옥(생활 77)
조화연(음대 64)

Sanfrancisco
(북가주)지부
황만익(사대 59)

Ohio지부
최인갑(공대 57)
김용린(약대 53)

Washington지부
장연식(사대 58)
김영미(생활 70)
박병일(농대 60)
오인환(문리 63)
이영목(공대 59)

Toronto(CANADA)지부
한상학(의대 51)

박종수(공대74)
박진수(의대56)
서윤석(의대62)
신창범(법대73)
양용권(수의62)
이대현(사대58)
이영덕(사대61)
이제창(공대60)
이정희(의대60)
장 훈(문리61)

*2009-10년 회비 누락 동문

장상진(의대55)
장형민(문리58)
고길산(약대69)
고희경(의대55)
곽노균(상대51)
권대현(경영59)
김경옥(음대62)
김동건(사대67)
김관영(공대53)
김정협(의대55)
김성범(상대50)
김상현(약대56)
김용권(문리49)
김용덕(의대53)
김용재(의대60)
김원영(의대61)
김순신(간호70)
김인협(의대54)
김정희(문리59)
김진화(의대54)
김호영(법대57)
김상현(약대58)
김상수(상대45)
남신우(공대61)
노은희(사대59)
문병호(사대47)
박순자(간호60)
박영옥(사대55)
박종일(의대60)
박진영(의대52)
박동열(사대60)
박상기(상대55)
박장우(문리72)
이종태(공대54)
이광린(법대51)
이진호(문리48)
이찬주(문리63)
임창희(공대73)
임한용(공대60)
장세진(상대59)
정길현(문리60)
정준영(문리67)
조상구(의대59)
조숙자(간호59)
지재원(사대68)
진기주(상대60)
최경수(문리54)
최경춘(사대51)
최대한(의대53)
한광수(의대57)
한순신(의대70)
한영준(사대60)
현정수(간호61)
황의찬(사대76)
황준호(저대70)
황현상(의대55)

기탁 후원회비및 기금 납부

관악후원회비

California
권영미(공대54)2000
김석종(법대62)2000
김은중(상대62)2000
김재권(사대62)2000
김한평(저대65)2000
박정모(문리66) 25
박화서(약대62) 25
양동백(농대70)2000
오재인(저대70) 20
원미랑(약대62) 20
이병선(상대70) 20
이승훈(상대70)425
이영일(문리53)2000
이장우(문리72)2000
정동구(공대57)2000
정복근(사대62) 25
정원훈(상대63)2000
최재관(문리62)2000
하기환(공대65)1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200

Florida
오석일(의대64)200
이문희(문리54) 25
전종자(공대60)200

Hawaii
김승태(의대57)100
김정원(공대46)200

Indiana
김연화(음대68) 25
송순영(문리52)100

Kansas
구재순(간호66)200

Illinois
고병훈(법대65) 100
구경회(의대59) 100
김사식(상대59)200
김윤범(의대65)200
노영일(의대62)200
노재욱(의대56)200
박 숙(의대64)100
박양규(농대57)200
이승우(사대60)200
이용학(공대48)100
임현재(의대59)500
정기남(문리62)500
장윤일(공대60)200
조대현(공대57)200
조동원(법대53)200
조형원(약대53) 100
최재관(문리62)100
한재은(의대59)200

Louisiana
장영빈(문리56)200

Maryland
강상용(약대60)200
장복자(의대55)200
권원수(의대60)200
나수섭(의대60)200
오인환(문리63)200
이선구(문리56)200
이태형(법대60)200
전정철(공대55)200
정두현(의대56)200
최지원(의대55)

Massachusetts
김재호(상대56)200

Minnesota
김태환(의대56)200
황규현(의대56)200

Mishigan
정 태(의대56)425

Nevada
최창식(의대61)200

New Jersey
김동식(사대67)200
김병철(공대60)200
김영만(상대59)200
조대영(공대57)200
박태호(상대76)500
윤현남(공대64)200
이전구(농대60)500
이종식(의대60)200
이준영(공대48)200
조태환(공대56)200
최경춘(사대51)200
한재은(의대59)200

New York
강동무(사대60)200
권영국(상대60)200
김상현(약대56)200
김정희(문리59)200
김정일(의대56)200
김종수(약대64)200
김지석(간호60)200
김창수(의대57)200
방상진(공대54)200
안태홍(상대65)200
양기영(의대49)200
이경재(공대63)200
이상훈(의대60)200
이영호(의대56)200
이주경(의대60)200
이준영(공대48)200
이중춘(공대56)200
이해창(약대62)200
이현호(공대58)200
이희경(의대55)200
임중섭(미대60)200
장정식(법대59)200
전병삼(약대54)200
전승일(공대64)200
정동기(공대59)200
정인식(상대58)200
정창동(간호45)200
정백수(문리46)200
조대영(공대61)200
조종수(공대64)200
조태환(공대56)200
차국연(상대56)200
천병우(공대70)200
최구진(약대54)200
최석진(사대54)200
최영혜(간호64)200
한승헌(미대60)200
홍선경(의대58)200
황문환(수의76)200
황성현(공대56)200

Oklahoma
김경숙(생활70)200
이상강(의대70)200

Oregon
김상순(상대67)225

Philadelphia
김영수(공대55)200
손재옥(생활77)200
송낭군(공대) 200
정상수(의대62)200
현재원(공대60)200

Texas
김동수(의대60)200
김재선(의대60)200
김정훈(공대63)200
김태훈(공대57)200
김한구(의대60)200
김홍식(의대63)200
이관구(의대60)200
이상기(의대60)200
이상훈(의대60)200
이정희(의대60)200
이종식(의대60)200
이주경(의대60)200
이준영(공대48)200
이중춘(공대56)200
이해창(약대62)200
이현호(공대58)200
이희경(의대55)200
조시호(문리59)200
조진래(문리57)200
최관일(공대54)200
최성호(문리58)200
최용원(의대53)200
탁순덕(사대57)200
황희찬(사대76)200

Utah
김상환(문리59)
김인기(문리58)
방과환(공대73)
이정면(사대48)

Virginia
고부환(법대57)
김인수(상대45)
김기룡(공대68)
김재량(공대62)
김정성(경원71)
남광순(음대64)
문상길(의대65)
박상기(법대75)
박용걸(약대56)
박일영(문리59)
박정훈(상대55)
박인영(의대69)
박재일(농대69)
박형순(의대54)
방정화(의대61)
변만식(사대49)
서희영(의대55)
우상상(공대71)
유홍열(문리74)
이규삼(상대68)
이관형(공대48)
이상식(의대52)
이세우(상대81)
이종희(의대59)
전기순(상대)
정희자(농대62)
조경용(공대67)
조요휴(문리61)
최규식(상대64)
최관호(공대60)

V.Virginia
박 엽(사대80)
황훈규(법대52)

Washington
구선영(공대65)
김동호(농대58)
김선호(상대59)
김정일(공대53)
김윤국(문리49)
김주홍(상대 50)
지인수(상대)

New England지부
박경민(의대 53)
윤희정(문리 62)
고일석(보대 66)
윤상래(수의 62)

New York지부
장광무(사대 60)
지창수(약대 64)
오인석(법대 58)
이진구(농대 60)
이준행(공대 48)
한경수(문리 57)

Philadelphia지부
고병은(문리 55)
서중민(공대 64)
손재옥(생활 77)
조화연(음대 64)

Sanfrancisco
(북가주)지부
황만익(사대 59)

Ohio지부
최인갑(공대 57)
김용린(약대 53)

Washington지부
장연식(사대 58)
김영미(생활 70)
박병일(농대 60)
오인환(문리 63)
이영목(공대 59)

Toronto(CANADA)지부
한상학(의대 51)

박종국(공대74)
박진수(의대56)
서윤석(의대62)
신창범(법대73)
양용권(수의62)
이대현(사대58)
이영덕(사대61)
이제창(공대60)
이정희(의대60)
장 훈(문리61)

특별후원금

모교출장일

3,000

일괄수 등형회장

3,000

지부분담금

시카고동창회 1,200
뉴잉글랜드 동창회
(오직동창회 분담금
1000 , 비주동창회
분담금 500)

동창회관 건립기금

Alaska
윤재중(농대55)300

Illinois
강병국(수의57)100
구경회(의대59)100
강동희(공대66)100
김병윤(문리65)100
김사식(상대59)100
김윤범(공대65)100
김정주(문리60)100
노재욱(의대56)100
박 숙(의대64)100
박헌희(간호61)300
박영규(농대57)100
박용순(의대53)100
방상진(공대54)100
성정자(의대55)100
신선녀(문리54)100
연경자(의대65)100
왕전한(공대59)100
원인숙(공대66)125
이동규(공대75)100

Massachusetts
박영희(농대62)/정선주 5,000
윤상래(수의62)
1,000

Maryland
박상신(문리53)
12,000

이승자(사대60)100
이형우(문리69)100
이용학(공대60)100
이윤모(농대57)100
이재호(공대56)100
이원주(지대61)200
임현재(의대59)100
전현일(농대62)100
정지희(문리59)100
정진희(약대54)100
조대현(공대57)100
조수형(의대53)100
최경희(간호54)100
최길용(문리57)100
최의권(사대51)100
한상호(의대56)300
황지원(문리65)100

Massachusetts
박영희(농대62)/정선주 5,000
윤상래(수의62)

Maryland
박상신(문리53)
12,000

1□□ 24-26(□□□)Layout 1 2011-01-12 □□ 10:38 Page 1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흥동(공대 58) (213)384-3730
2525 W. 8th St.#201 L.A. CA 90057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존(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등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강경록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50 Wilshire Blvd.#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St.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5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흥원 (사회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종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권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영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표)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정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성(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영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82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설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련(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1□□ 24-26(□□□)Layout 1 2011-01-12 □□ 10:38 Page 2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융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 (626) 284-9782
1420 Abajo Dr.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애리(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목곤(미대 76) ◦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환(경영대학원 59)◦ (213) 386-59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 (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분(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염(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정동석(문리대 65)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영훈(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충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인재개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q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문희(상대 76)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 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효(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9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r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l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1□□ 24-26(□□□):Layout 1 2011-01-12 □□ 10:38 Page 3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현 치과
신우현(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병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의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강승현(의대 75) ◦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MD,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y.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성(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ma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강충서(의대 63) ◦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제약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6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광(사대 64)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West Ca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김인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방의원/한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희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 가주

상담/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451-0240 /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의/내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 (916) 482-26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안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1□□ 27-29(□□□):Layout 1 2011-01-12 □□ 10:43 Page 1

DC,MD,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재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경연식(사대 58) ◦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필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항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수의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의생(수의 60) ◦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병남(문리 60) ◦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tunda Office Building #405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테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e Ave., Ma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강만복(문리 72),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5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 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07657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병현(법대 55) ◦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얄 부동산
염무권(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월(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m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종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훈(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426 Skokie IL 60077

학원 / 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황성백(문리 55) ◦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수의사 / 동물병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 56) ◦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 / 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종 심장내과
이한종(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길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경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8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1□□ 27-29(□□□)-Layout 1 2011-01-12 □□ 10:43 Page 2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한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염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류)
김무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묵(약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융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동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담 / 재정설계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온가족이 누리는 최상의 명품 법률서비스
무제한 법률상담부터 교통관련, 소송, IRS감사, 사고/상해보험,24/7 청룡방어, 신분도용 방지까지 미국내 50개 주에서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Pre-Paid Legal Services, Inc NYSE Listed,BBB rating A+ 황문하(수의 76)Independent Associate, Director 631-682-0894 #hwang@prepaidlegal.com 한국어(www.pplsvtu.com,영어(www.prepaidlegal.com)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리시아 등) 및 성지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 (212)239-0999

서비스 / 클리너 / 잠금장치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 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상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한배(농대 70) (201) 947-65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현 위장내과
백승현(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목(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병렬 소아과
박병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홍(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1□□ 27-29(□□□)-Layout 1 2011-01-12 □□ 10:43 Page 3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환(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림(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원(의대 61) ◦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 (516) 378-0119
131 Merrick Ave.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권(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숭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 / 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훈(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형원(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Lancaster OH 43130

OK 하틀랜드

의 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희(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경(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교 회

***엘림 한인교회**
최근녕 (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mington DE 19808

금융 / 보험 /리테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441-3240
101 Gibralte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잡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옥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백(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인(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희(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응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동이 약국
허행기 (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HOU 휴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장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1□□ 30~32(□□□ Back□):Aug_Rev 2011-01-12 □□ 10:49 Page 1

엔지니어링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ium Inc.
명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 / 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N.W. Gig Harbor WA 98332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병(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미주동창회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유수(문)·강수상(의)·이병준(상)·오인석(법)·이용락(공)·오홍조(치)·이영묵(공)

영예회장 : 이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종(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회(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형(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이병준(상)·방은호(약)·윤정옥(약)·이경림(상)·서동영(사)·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진금섭(약)·이용락(공)·서중민(공)·한재은(의)·신응남(농)·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숙(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정 호(공)·장기남(문)·최순용(문)·김 사 : 박명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및 임원

발 행 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완(법) 조대현(공)
구경회(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해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희(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종(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한종철(치대 62입) 562-860-8544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차기회장	
샌디에이고	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뉴욕	회장	에드워드 강(사대 60입)212-594-9034 edwardcmkang@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공순옥(간호대 66입) 410-461-4425 ssong00196@verizon.com
	차기회장	송상희(문리대 71입) 703-298-9470
시카고	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kimsajik@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328-2563
	차기회장	주기옥(수의 68입) 215-938-1097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h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희경(문리 62입) 508-740-9188 heekyoon@hotmail.com
	차기회장	김병국(공대 71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병(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배규열(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박진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틀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벤쿠버	회장	이인철(사대 59입) in-cheol-lee@hotmail.com
	차기회장	조석기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1□□ 30~32(□□□ Back□):Aug_Rev 2011-01-12 □□ 10:49 Page 2

2011년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주소록 갱신 안내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제위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는 지난 2008년 발간한 동문 주소록을 금번 2011년 2~3월중 갱신코자 합니다.

2008년 발간한 주소록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있거나 또는 신규 등록을 원하는 동문님들께서는 하기 윤병하 사무총장 연락처(e-Mail 또는 우송)로 양식과 함께 마감시한인 1월31일까지 꼭 우송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복된 201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장 에드워드 강 이사장 추재욱

e-Mail : benjamin@ailus.com 또는
주 소 : 147-38 182nd St. 1st Floor, Jamaica, NY 11413
ATTN : Benjamin Yoon(윤병하 사무총장)
양 식 : 아래 사항을 기재 후 해당하는 박스(□)에 마크(Mark)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한글)	(영문)	
단과대	입학연도	졸업연도
주소/집		
전화/집	Cell	e-Mail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해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맡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메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인 3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문의 800-275-2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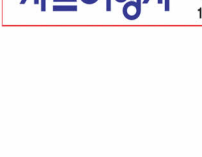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 탑승시 동문께 드리는혜택
1)일반석 승객께도 인천공항 VIP 라운지사용 특권(음식/샤워실/인터넷무료제공)
2)최저가 항공권에 항공좌석 우선배정 특권(비상구자리등)
3)매년 2~3회 정기적으로 한국방문하시는 분들께 최상급 우대써비스 제공
4)가족과 동반여행시 가족에게도 상기 혜택 적용

알라스카 크루즈 스페셜 (글레이서베이 포함)
한국인가이드/선내한식제공/한국키라오케/시애틀시내관광포함
5/15일 , 5/29일 특별출발
시카고출발 항공료포함
$1350

중미의 파라다이스

1/28일출발
환상의 여행 4박5일
Costa Rica
$1320 항공료포함

한국여행
아시아나 이용시 공항리무진버스 탑승권 제공(서울시내)
한양대학병원 종합검진 스페셜 할인혜택- $360(남) $400(여)
저렴한 요금의 한국 특세론 대여(론당 35센트)
한국 유명 호텔 30~40% 할인 예약
디럭스 제주2박3일 관광투어 3박10일 전국 일주관광



일본및 동남아여행
일본 미야자키 겨울골프 2박3일
일본 구마모토 겨울골프 2박3일
중국관광(북경3박/상해,항샤3박/곤명골프5박)
발리,파타야 3박4일관광및 골프여행
마닐라/세부 관광및 골프여행

유럽여행
미국부터 전문가이드가 동행하는 VIP 투어
2011년 스페인/포르투갈 8일($2690) 3/26출발
2011년 북유럽 10일 VIP 투어($3950) 7/11일출발
이태리 6박7일 / 송월비라이트 10일
동유럽 바이라이트 9일/ 그리스,터키 11일
북유럽과 러시아6개국 크루즈 11박12일
$1290/ 출발일:5/24,6/29,7/17,8/13,9/9출발

샤프여행사 예약및 문의 : 800-222-3586
1615 Milwaukee Ave .Suite 125, Glenview IL 60025
Email : sharptour@hotmail.com
Homepage : www.sharptours.com

1□□ 30~32(□□□ Back□):Aug_Rev 2011-01-12 □□ 10:49 Page 3

서울대학교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정운찬 前 국무총리 초청 모금강연회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 **일 시** : 2011년 1월 29일(토) 17:00 ~ 만찬
⊙ **장 소** : Doubletree Hotel Norwalk
13111 Sycamore Dr. Norwalk, CA 90650
Tel : 562-863-5555
⊙ **주 관**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 **참가신청 및 행사문의**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행사 추진위원회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Office : 213-739-0234, Fax : 213-739-0240
Cel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 **참가비** : USD 60

※ 만찬 후,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이 · 취임식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정운찬 前 국무총리 초청 모금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치 · 경제 · 교육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정운찬 前총리의 강연은 서울대학교 동문을 비롯하여 모국의 미래와 발전에 관심 있는 재미 한인 교포 여러분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되새기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이번 강연에서 정운찬 前총리는 G20을 개최하며 정치 ·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의 강연 후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바로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든든한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IRS: 미연방국세청)에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등록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자매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장학사업과 각종 연구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미국교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재미 동문들의 친목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의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